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6417.93 (+29.46)	코스닥 1181.12 (+2.09)
금리 (연이자율) 3.360 (+0.030)	환율 (원/달러) 1478.75 (+10.25)

가격 8배 뛰고 품귀  
삼성·SK  
'낸드' 생산능력 확대  
04



## 중동 發 '오일 쇼크' 전기차 대중화 이끌다

### 누적 등록 100만 시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전기차(EV)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누적 등록 100만대 시대를 기록하는 등 상승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은 연초부터 시작된 전기차 업체의 가격 할인과 엔트리 모델 출시, 유가 상승으로 등의 요인으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화재와 충전 인프라 문제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굳어지는 국면이다.

### 유가불안·신차확대·가격할인 등 사회초년생·세컨드카 수요 자극 지원금 소진시 판매 유지엔 의문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 15일 10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 영향으로 올들어 이달 초까지만 10만대 판매됐다. 지난해의 경우 7월에야 10만대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고유가 불안과 신차 출시 확대, 가격 할인 경쟁,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과거 프리미엄 전략을 벗어나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과거 6000만~8000만원대를 형성했던 전기차는 3000만~4000만원대로 출시되고 있으며 수입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할인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기아는 지난 1분기 보급형 모델인 EV3(8674대)와 다목적 모델 PV5(8086대)로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다. 또 테슬라는 모

텔Y의 가격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 사이 최대 1000만원 가량 할인하면서 국내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기아 레이 EV는 2000만원 중반대, 기아 EV4는 3000만~4000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는 아토3와 돌핀을 각각 3000만원대와 2000만원대로 출시하며 가성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고 있는 KG모빌리티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채택한 가성비 모델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 간 가격 경쟁과 라인업 확대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사회초년생과 '세컨드카' 수요층의 심리를 자극하며 시장 상승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소진될 경우에도 이같은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1차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올해 전체 지급 규모는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000대, 승합차 3800대로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의 전기차 지원정책이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거 3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두 달 이른 1월에 확정되면서 구매 대기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30년 420만대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유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 2월 출생아 2.3만명... 7년 만에 최대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출산율도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저출생 반동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47명(13.6%) 증가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13.6%)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출산율도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저출생 반동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47명(13.6%) 증가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13.6%)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시스

## 5년간 베트남과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 韓-베트남 정상회담 경제 협력·공급망·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한층 고도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2일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원전·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고,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이후 럽 서기장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또 럽 서기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으로,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과 에너지와 공급망,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고도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945억달러인 양국 교역액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원전, 신도시·신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도 이번 방문의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방

문 기간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고도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양 정상이 서로를 '첫 국빈'으로 초청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럽 서기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 정상으로, 지난해 8월 국빈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서예진 기자 syj@

## SR·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객만족도 '매우 미흡'

재경부, 공공기관 186곳 조사  
평균점수 89.2점, 전년비 1.3점 ↑  
미흡 20곳 등 절반이상 보통이하

고속철도운영사인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사 대상 총 186개 기관 가운데 '매우 미흡' 단 2곳에 이름을 올린 것. 이 밖에 '미흡'이 20곳, '보통'이 84곳 등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년도와 비교해 수직상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평균 점수가 89.2점으로 전년(87.9점) 대비 1.3점 올랐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20개 공기업, 54개 준정부기관, 112개 기타공공기관 등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등급(우수·보통·미흡) 체계를 5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세분화했다.

등급별 기관 수는 ▲매우우수 12개 ▲우수 65개 ▲보통 84개(45.2%) ▲미흡

20개(10.8%) ▲매우미흡 2개(1.1%)로 집계됐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이에 반해,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매우미흡' 등급이라는 오명을 썼다.

재경부는 '미흡' 이하 22개 기관에 대해, 주무 부처의 책임하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서비스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 ▲조국, 2차 교통공약 발표... "평택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사진 뉴시스
- ▲야당 "여당, 부산글로벌허브법 재설계? 부산 우롱하나"

- ▲송언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신호 철회해야... 선거 후 세금 폭탄 불안감 시장 지배"
- ▲국힘, 문화예술계 낙하산 인사 비판... "황교익·서승만 임명은 코믹호러물"

- ▲광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강기정 시장과 무등산 산행
- ▲'장동혁 패싱론' 확산... 국힘 후보들 독자 선대 위 속속 꾸러

# 주담대 규제 앞두고 '막차 행렬' 전세시장 가격상승 압력 우려도

이달 들어 시중은행 잔액 1조 증가 규제 시행 후 매수시장 위축 가능성 전세로 수요 이동시 가격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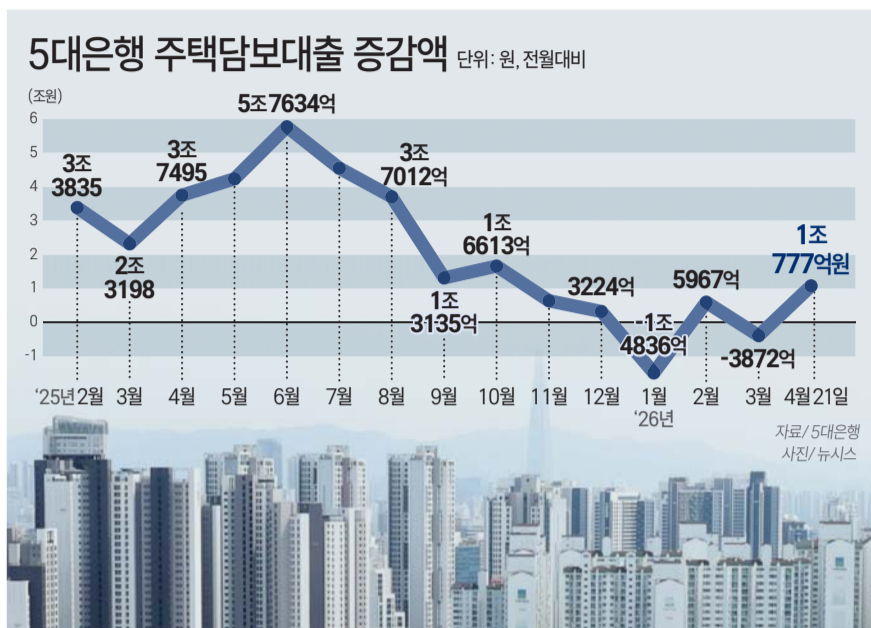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수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때문에 최근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일 새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 시행전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날 기준 611조4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과 비교해 1조 777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611조6081억원을 기록한 후 올해 1월 말 610조124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월 말 610조7211억원, 3월 말 610조3339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봄철 이사수요 외에도 주담대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과 주담대 규모를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60% 내외로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연 1.5% 수준으로 낮게 제시한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1조원이라면 그중 6000억원만 주담대로 취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5대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6781억원으로 올해 증가율 목표치는 1%, 7조6767억원이다. 주담대는 가계대출의 60%, 4조6000억원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월당위로 환산하면 3800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매수 수요가 위축되며 일부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4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보다 0.17% 상승했다. 직전

주(0.16%)보다 상승폭이 컸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0.28% 상승해 전셋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다. 성북구도 길음·돈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30% 올랐고, 노원구는 공릉·상계동 위주로 0.30% 뛰었다. 강북구는 미아·번동 위주로 0.26% 상승했다. 강서구는 염창·가양동 위주로 0.19% 올랐고, 강동구도 0.15%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 수요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세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유입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SK하이닉스, 청주 'P&T7' 첫 삽

〈첨단 패키징·테스트 전용 팹〉

19조 규모 초대형 투자 본격 착수

SK하이닉스가 22일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첨단 패키징·테스트 전용 팹 'P&T7' 착공식을 공식 개최하며 19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병기 양산총괄을 비롯한 임직원 125명 및 구성원 가족 40명,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임직원 20명이 참석했다. 1월 건설 계획 발표 후 불과 3개월 만으로, 당초 예고한 일정보다 빠르게 착공에 들어갔다.

이병기 양산총괄은 착공식 인사말에서 "P&T7은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리더십을 완결 짓는 핵심 생산기지"라며 "이곳에서 생산될 첨단 제품들이 글로벌 AI 인프라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제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T7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용 시설이다.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7만 평 부지에 총 19조 원이 투입되며, 클린룸 면적만 약 15만㎡(4.6만 평)에 달한다. 생산라인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2027년 말 완공이 목표다.

P&T(Package&Test)는 전공정 팹에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최종 제품 형태로 완성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후공정 시설이다. 특히 HBM과 같은 고성능 AI 메모리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제품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P&T7은 이미 구축 중인 청주 전공정 팹 M15X와 긴밀히 연계해, M15X에서 생산된 D램을 HBM으로 완성하는 전



P&T7 착공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과정이 청주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M11·M12·M15·M15X에 이은 청주 지역 다섯번째 생산시설이자 국내 일곱번째 패키징 기지다.

이번 투자의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HBM 수요가 있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HBM 생산물량은 이미 완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매출은 HBM 특수에 힘입어 약 8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7.2% 급증했으며,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3위에 올랐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공사 기간 하루 평균 약 320명, 최대 9000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며, 완공 이후에는 약 3000명의 상시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청주시는 건축허가 신청 접수 후 4주 만에 허가를 완료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투자는 단기적인 효율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하림그룹,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품는다

## NS홈쇼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홈플러스 회생 절차 분수령 전망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며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기업의 주력 상품인 농산물과 식품을 집 근처 슈퍼마켓을 통해 신선하게 배송하면서 홈쇼핑·온라인 채널과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된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서 NS홈쇼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NS홈쇼핑은 하림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하림그룹 계열사다.

NS홈쇼핑이 이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가 주요 목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TV와 온라인만으로 부족했던 오프라인 접점을 전국 300여 개 홈플러스 매장을 통해 한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은 입찰문을 통해 "이번 인수 참여는 당사가 보유한 식품 전문성과 유통 역량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TV홈

핑, T커머스, 온라인·모바일몰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연계함으로써 신선식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NS홈쇼핑의 주력 상품인 식품을 집 근처 익스프레스 매장을 통해 신선하게 배송하면 강력한 로컬 배송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NS홈쇼핑 방송에서 나온 제품을 집 앞 매장에서 바로 구매하거나 시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판매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육류 전문 공급망을 갖춘 하림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하림이 생산한 고품질 육류와 가공식품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더미식' 등의 제품을 SSM 매장 전면에 배치하는 등의 전략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려도 남아있다. 가장 큰 숙제는 인수 자금 조달이다. 업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각가가 기존의 예상치(3000억원)보다 낮은 2000억~25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NS홈쇼핑의 유동 자산은 2205억 원 수준으로 그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51억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모기업

인 하림그룹의 지원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기준 하림지주는 1조4593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다.

NS홈쇼핑이 과거 SSM 사업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NS홈쇼핑은 'NS마트'라는 SSM을 운영했지만 유통사들의 경쟁에서 밀리며 2012년경 해당 사업부를 이마트에 브리데이 매각한 바 있다.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이 정체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수 이후에도 신선식품 물류 시스템과 공급망을 재 정비하고 낡은 매장을 리뉴얼하는 데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스프레스의 매각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본입찰 결과를 서울 회생법원에 보고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5월4일까지이다. 인수 절차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석화제품 가격 급등... 생산자물가 1.6% ↑

한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 125.24 전월비 공산품 3.5% ↑... 오름세 주도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유·화학제품 가격 급등 영향으로 큰 폭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내렸지만 공산품이 강하게 오르면서 전월 기준 상승폭은 2022년 4월 이후 가장 컸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2022년 4월 1.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23년 2월 4.8%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 보면 농림수산물 제품은 전월 대비 3.3% 하락했다. 농산물이 5.0%, 축산물이 1.6%, 수산물이 2.0% 각각 내렸다. 쌀(-42.5%), 양파(-53.4%), 조기(-23.3%) 등 하락폭이 컸다.

반면 공산품은 전월 대비 3.5% 상승해 전체 생산자물가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석탄및석유제품이 31.9%, 화학제품이 6.7% 올랐고, 세부 품목으로는 나프타가 68.0%, 경유가 20.8%, 에틸렌이 60.5%, 크실렌이 33.5% 상승했다. 컴퓨터기억장치도 101.4%, DRAM은 18.9% 올랐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 시가스가 3.0% 내리면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서비스는 음식점및숙박



서비스가 0.1% 올랐지만 운송서비스가 0.2% 내려 전월 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비스가 3.1% 상승했다.

특수분류로 보면 식료품은 전월 대비 1.6% 하락했고, 신선식품은 7.0% 떨어졌다. 반면 에너지는 4.2%, IT는 1.7%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도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4.5% 올라 생산단 전반의 물가 압력이 확산한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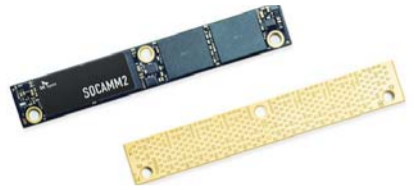
이외에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국내생산품에 수출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7%,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HBM 중심 AI 메모리시장 소캠2 둘러싼 3파전 본격화

추론 확산에 새 메모리 축 형성  
저전력·고효율 경쟁 부상 가속  
삼성·SK, 소캠2 양산 경쟁 돌입  
마이크론, 고용량 제품 앞세워 가세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이 분수령



SK하이닉스의 '소캠2(SOCAMM2)'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신LPDDR5X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2(SOCAMM2)' /삼성전자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AI 서버 메모리 시장이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소캠2(SOCAMM 2)'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잇따라 양산 체제를 갖추며 3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Vera Rubin)' 하반기 출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캠2는 'Small Outline Compression Attached Memory Module 2'의 줄임말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탑재되던 LPDDR 메모리를 서버 환경에 맞게 재설계한 차세대 AI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이다. GPU 패키지 내부에 직접 탑재되는 HBM과 서버용 DDR5 메모리 사이의 중간 계층을 담당하며, AI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접근 병목을 완충하는 구조다.

업계는 소캠2 도입 이후 AI 서버 메모리 구조가 HBM·소캠·DDR5·CXL(Compute Express Link)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리서치인텔리전스는 소캠을 포함한 저전력 D램 시장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해 258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엔비디아가 올해 1월 CES에서 공개한 베라 루빈 플랫폼은 GPU에 HBM4를, CPU 인접 영역에 소캠2를 배치

하는 하이브리드 메모리 아키텍처를 채택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다이는 베라 루빈에 대해 현재 대비 추론 성능 5배, 학습 속도 3.5배 향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도 해당 아키텍처에 맞춰 사전 통합·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 경쟁의 포문은 삼성전자가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16일 GTC 2026에서 10나노급 5세대(1b) 공정 기반 192GB 소캠2의 업계 최초 양산을 선언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올해 엔비디아 소캠2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충족하려면 대규모 생산 물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10나노급 6세대(1c) 공정 기반 192GB 소캠2 양산을 공식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사 제품 기준 RDIMM 대비 대역폭은 2배 이상, 전력 효율은 75% 이상 개선됐으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9.6 Gbps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소캠2와 함께 차세대 HBM4도 베라 루빈 플랫폼에 공급할 예정이다.

마이크론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256GB 소캠2 고객 샘플 출하를 발표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192GB 제품보다 33% 높은 용량으로, 8채널 CPU

기준 시스템당 최대 2TB의 LPDDR 구성이 가능하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자사 내부 테스트 기준 LLM 추론 환경에서 첫 토큰 생성 시간(TTFT)이 기존 대비 2.3배 향상됐다. 마이크론은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사 경쟁이 단기간에 가열된 것은 AI 인프라 투자 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 단계에서는 GPU·HBM 중심의 연산 성능이 핵심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Inference) 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추론 단계에서는 연산 속도보다 전력 비용과 메모리 효율이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소캠2는 기존 서버 메모리보다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높은 처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절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캠2 경쟁은 단순한 용량 확대를 넘어 수율 안정성과 공정 기술력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력 효율과 시스템 최적화 역량이 향후 AI 인프라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왼쪽부터)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과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연구 총괄 부사장이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LG

## LG-엔비디아, 기술동맹 강화 K-엑사원 생태계 확장 나선다

엑사원·네모트론 결합 특화모델 개발  
차세대 모델 협력·생태계 확장 논의  
소버린 AI 기반 성과 확산 추진

LG AI연구원이 엔비디아와 기술 동맹을 확대하며 'K-엑사원(EXAONE)' 생태계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LG AI연구원은 엔비디아의 경영진과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곡 LG AI연구원 본사에서 만나 'K-엑사원(EXAONE)'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 이진식 엑사원랩장 등 LG AI연구원 경영진은 네모트론 개발자대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응용연구 총괄 브라이언 카탄자로 부사장과 정소영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 등 엔비디아 경영진과 만나 차세대 AI 모델 개발 협력 및 AI 생태계 공동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양사는 LG의 AI 모델 '엑사원(EXAONE)'과 엔비디아 'Nemotron' 오픈 에코시스템을 결합해 전문 분야 특화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LG AI연구원과 엔비디아는 엑사원 3.0부터 K-엑사원과 이달 초 공개한 멀티모달 AI 엑사원 4.5에 이르는 개발 과정

에서 긴밀한 기술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개발 과정에서 Nemotron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해 데이터 학습 품질을 확보했으며, 엔비디아는 최신 GPU(Blackwell)와 AI 개발 플랫폼(NeMo Framework), 추론 성능 강화 소프트웨어(TensorRT-LLM) 등을 제공하며 AI 모델 학습 최적화와 추론 성능과 효율성 향상을 도왔다.

LG AI연구원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최근 발간한 'AI 지수 보고서'에 한국이 주목할 만한 AI 모델 5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 4개가 ▲국내 최초 추론 모델 '엑사원 딥(Deep)' ▲의료 특화 AI '엑사원 패스(Path) 2.0' 등 LG AI연구원의 엑사원 시리즈였다.

LG그룹 차원의 AI 협력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구광모(현 LG 대표)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X의 글로벌 선도 기업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스킵 키드AI의 디팍 파타과 아비나브 굽타 공동 창업자를 차례로 만나 AI X 가속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나누기도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전력 저장하고 필요 땐 공급... 전기차, '달리는 ESS'로

영·미·일·네덜란드, V2G 경쟁 본격화  
현대차, 제주서 전기차 실증 나서  
요금·보상체계 정비가 상용화 관건



현대차그룹의 제주도 V2G 실증 서비스 현장에서 전기차들이 양방향 충전기에 연결돼 실제 충·방전을 통해 전력을 주고 받고 있다.

중동 전정 장기화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를 자국내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전기차의 '양방향 충전(Vehicle to Grid; V2G)'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화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기차를 전력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술 확보와 제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국은 V2G 기술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역할 확장에 본격 나섰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기술로, 차량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차량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 시간에는 이를 전력망에 공급할

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도시 단위 실증 프로젝트인 '위트레흐트 에너지이즈'를 통해 전기차와 태양광 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잉여 전력을 차량에 저장했다가 필요시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정전 상황 대응을 위한 V2G 실증을 진행 중이며,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기차를 비상 전력 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V2G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 적용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아이오닉 9, EV9 등 전기차 50여 대를 투입해 충전 인프라와 전력망 연계 안정성을 검증 중이며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지적이 나온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 곡성군 공고 제2026-565호 무연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시신을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곡성군수

####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등록기준지 주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회장 일시	처리 방법
				안치장소	사실통정		
한경진	61.09.04.(남)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378-6	2026.3.28. 21:45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61 곡성사랑병원	병사	2026.3.30.	화장 후 봉안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132 재단법인 아너스홀	의료기관에서 사망		

#### 2. 시신의 발생상황

· 한경진 : 2026. 3. 28. 21:45 의료기관(곡성사랑병원)에서 사망

#### 3. 처리 및 안치(보관)장소

· 처리방법 : 화장 후 봉안  
· 봉안기간 : 5년  
· 봉안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132 재단법인 아너스홀

4. 공고기간 : 2026. 4. 20. ~ 2026. 5. 19. (1개월간)

5. 연락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61-360-8221

# 가격 8배 뛰고 품귀현상... 삼성·SK, '낸드' 생산능력 늘린다

AI 수요, 학습 넘어 추론영역 확대  
데이터 저장·불러오기 중요해져

삼성전자, P5 공장에 낸드 증설  
중 시안공장서도 설비 전환 투자

SK하이닉스, 中 다렌공장 활용  
장비교체 통해 공정 효율 개선 집중

인공지능(AI) 수요가 단순한 모델 학습을 넘어 추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낸드 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표준 낸드 제품의 기준 계약 가격은 전월 대비 약 40% 상승한 17.7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5년 초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AI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낸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메모리 업체들이 낸드 생산을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공장 전경

줄이고 D램과 HBM에 집중하면서 낸드 생산 능력 확대가 현재의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삼성전자의 평균 판매가격(ASP) 상승률이 15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

기도 했다. 이는 D램의 ASP상승률(127%)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낸드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건설 중인 P5 공장에서 낸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로 결

정했다. 이는 약 5년 전 P3 공장 이후 처음 이뤄지는 낸드 증설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평택 P5는 6단계로 구성되는 대형 팹으로 이 중 일부 라인이 10세대 낸드(V10) 생산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신규 낸드 생산라인 건설을 대부분 중단하고 D램 투자에 집중해 왔으며 낸드 관련 지출도 공정 전환 중심으로 제한해 왔다.

낸드 생산기지인 중국 시안 공장도 설비 전환에 한창이다. 삼성전자 시안 1공장은 최근 236단 8세대 낸드(V8)로 전환 투자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램프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안 2공장 역시 웨이퍼 기준 월 4만장 수준의 286단 9세대 낸드(V9) 전환 투자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또한 중국 다렌 공장을 활용해 낸드 물량을 늘리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렌 1공장은 192단 쿼드러플 레벨 셀(QLC) 낸드를 중심으로 노후화

된 장비 교체를 통해 공정 효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비어 있는 다렌 2공장은 하반기 웨이퍼 기준 월 5만장 수준의 8세대 낸드(V8)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생산능력이 본격 가동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메모리 시장이 투자 확대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수요가 학습 중심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메모리 사용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이 중요해지면서 낸드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격 상승과 수익성 개선 흐름을 고려하면 낸드가 다시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통신3사, '완전한 5G' 전환 박차... 6G시대 필수 관문

KT, 아이폰17에도 서비스... 선두 행보  
SKT, 망 테스트 거쳐 적용 단계 진입  
LG U+, 기술 준비 마쳐... 연내 상용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타이틀을 내세웠던 한국 통신망이 '완전한 5G'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2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통신3사가 연내 5G SA 전환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G SA는 기존 비단독모드(NSA)와 달리 LTE 망의 도움 없이 5G 망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모든 신호와 트래픽을 5G 전용 코어망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이전보다 빠르고, LTE 연결 유지를 위한 전력 소모가 없어 단말기 배터리 효율도 크게 향상된다. 특히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쪼개 사용하는 '네트워크 슬라이



SK텔레콤 엔지니어가 5G 상공망 안테나 장비를 점검하는 장면.

/SKT

스licing' 기술은 SA 환경에서만 온전히 구현될 수 있어, 자율주행이나 스마트팩토리처럼 초저지연과 고신뢰성이 필수적인 미래 산업의 핵심 토대로 꼽힌다.

국내 통신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먼저 SA 상용화를 시작한 KT에 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내 전국적인 상용화 마무리를 목표로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5G SA 관련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T는 2021년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 단말기를 대상으로 5G SA 상용화를 시작한 후 2024년에는 국내 최초 5G 통화 서비스(VoNR)를 상용화, 지난 달 '아이폰 17시리즈'까지 5G SA 서비스를 상용화 했다.

SK텔레콤은 망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 적용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프라 전략차원에서 5G SA를 AI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이종훈 네트워크전략담당은 "5G SA는 올해 4분기 중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5G는 산업 생태계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최초 상용화보다 빠른 시간대로 전국망을 완성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월 실적 발표 과정에서 망 차원의 기술적 준비를 마쳤고, 품질 시험을 거쳐 연내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시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방식을 통해 대규모 추가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품질 안정화를 거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G SA는 비록 추가 투자 대비 수익 모델이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우려와, 전용 요금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AI 기반의 6G 시대로 진화하기 위해 SA 도입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경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통신사들의 움직임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2026년 내 5G 단독모드(SA) 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통신 3사의 SA 전환을 포함시켰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LTE에 의존해온 비단독모드(NSA)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과기정통부의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가교로서 더 나은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SA 전면 확산은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5G SA의 안정적인 전환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B2B·B2C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정 기자 seoh@



metro

## 美-이란 휴전 교착... 석유최고가격제 4차 시행 여부 고심

김민석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의 4차 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름 자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 관련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덕분에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신중하게 고

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석유최고가격제는 내일부로 종료된다. 이어 4차까지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열렸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민감 계층에서의 충격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

과 생활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해 가야겠다"고 했다.

또 "이번 위기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을 함께 병행해줄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의 경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치하는 한편, 공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예로를 수렴해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그들(이란)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

다. 또 동시에 미군의 호르부즈 해협 역봉쇄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며 맞섰다. 파키스탄에서의 2차 협상이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금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 연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

서로 다른 음표가 하나로 연결될 때  
아름다운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4월 22일, 신한은 금융권 최초로  
발달장애인 음악단 '신한 SOL레미오'를  
창단하고 상생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 「신한 SOL레미오」 음악단

발달 장애인 연주자 직접 채용으로  
일자리 제공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카페 스윗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착한 소비문화 전파



### 장애청년드림팀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 도전 및 청년리더 성장 지원

# “5인 미만 확대 반대”... 소공연, 여야에 22대 정책과제 제안

고용·노동 정책 현실화 등 포함  
‘지역별 민생현장 44대 과제’도 제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업계 숙원

소상공인연합회가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관련 ‘4대 아젠다·22대 핵심과제’를 내놨다.

여기에는 고용·노동 정책 현실화,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해소, 공정 생태계 관련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지역비자 제도 도입’ (경북도) 등 지역별 맞춤형 민생 현장 44대 과제도 제시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역 과제 역시 각 당의 광역지자체 후보들이 결정되는대로 지역연합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선 ▲주휴수당 폐지 ▲임금 근로시간 변화에 관한 소상공인 참여보장을 중심으로 한



송지영 소상공인연합회장(앞줄 왼쪽 5번째)이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연합회 현안 청취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공연

고용·노동 현안들은 소상공인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과제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소공연은 논의를 즉시 철회하고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법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선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한결같이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선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중 소상공인 몫 2→4명 확대, 최저임금법에 ‘영세·취약사업장 소상공인 지불능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도 업계의 숙원이다. 이를 통해 의료, 학자금 등 생활안정 대책과 복지진흥기금 설치, 사회보험 특례 적용, 나아가 기본소득 보장 기반 마련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복구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모

두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22대 핵심 과제에는 ▲경영안정비우처 대상 및 금액 확대 ▲소상공인 전용 소액대출 상품 도입 ▲지역신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균형 성장 추진 등 ‘양극화 해소’ 과제와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소상공인 단체고섭권·단결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공정 생태계’ 과제도 포함돼 있다.

지역 맞춤형 과제의 경우 소상공인

관련 특별지역비자 제도 도입, 생명안전망 3대 질병 보장제 도입 내용이 담긴 경북도 과제가 눈에 띈다.

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가 수요를 반영해 외국 인력을 추천하는 지역주도형 특별비자 트랙을 도입하고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F-2-R) 및 특정활동(E-7)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과 같은 3대 중증 질병 확진 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폐업을 예방하거나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소상공인 중 가장 많은 26.7% (약 210만개·2023년 기준)가 물려 있는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고경비 부담 완화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생활상권 중심 상권 회복 및 상시 관리체계 구축 ▲소상공인 고용·노동 부담 완화 지원 ▲공공소비·공공조달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 확대 ▲소상공인 플랫폼 의존 완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재도전·업종전환 지원 체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해항에서 어구를 손질하며 어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뉴스1

## 김진태, 장동혁에 직격... “결자해지 필요”

“국힘, 중앙당 이슈로 어려움 겪어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태 현 강원지사 22일 강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주셨으면 좋겠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 양양수산물어촌마을회관에서 장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원 일정은 장 대표의 방미 후 지역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보였다.

김 지사는 “현장을 다녀보니 내가 원래 빨간당(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음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뛰어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시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며 “강원도에는 우리 당 후보가 300명쯤 된다. 아마 이 후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대표를 만나면 더 세계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루 종일 발이 부르뜨도록 다녀봐야 중앙당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다”며 “당장이제 42일이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후보의 말을 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 이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강원도에 1시간대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2028년 조기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춘천 연장, GTX-D 노선 원주 신설, 강원 내륙선과 태백 영동선 철도 고속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김용 리스크·송영길 복귀론... 與 공천 난제

이광재, 민주당 다크호스로 부상  
부산 북갑 하정우 차출설 술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여전히 고심을 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김용 전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져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앞서 재보선 공천 방향성을 ‘전광석화’라고 표현하며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번주 내로 빠르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김용 전 부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보석 석방 후엔 안산갑·하남갑 등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거론하며 재보선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일각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재보선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이 정계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출마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가 김 전 부원장을 전략공천 대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 공천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통영시 통영활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며 민생 탐방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 역시 이날 경남 통영 목지도에서 당포항으로 이동하는 여객선 내에서 열린 선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며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부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인천 계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곳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다. 하지만 정 대표가 김 전 대변인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연수갑이나 경기 하남갑에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하남갑은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이 될 예정이다. 다만 연수갑은 인천에 다른 지역에 비해 민주당세가 세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강성’ 이미지만 송 전 대표가 가는 것은 전략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송 전 대표가 하남갑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라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말해 이광재 전 지사가 경기 하남갑 또는 평택을 두고 당과 조율이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다른 관심 지역 중 하나인 부산 북구갑 선거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이후 하 수석이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당내에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1호 울산 남구갑 전대진 변호사에 이은 재보선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ㅎㅎㅎ

모두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게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모두를 웃게하는 금정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더 알아보기

NH농협손해보험

# CBDC·예금토큰, 투 트랙 유력... '원화코인 정책' 새 국면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디지털결제 원화위상 높일 것”  
한은,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에 동의  
단 ‘통제력 높은 구조 발행’ 지지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첫날 ‘CBDC(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언급하면서, 향후 ‘원화코인’ 발행 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CBDC, 예금토큰이 공존하는 ‘투 트랙 구조’의 도입이 유력해져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취임식에서 ‘CBDC’와 ‘예금토큰’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비(非) 금융권이 발행을 주도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진행됐던 만큼, 통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뢰성이 높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원화코인의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송 총재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화폐에 대한 신뢰와 지급결제의 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중앙은행의 시대적 책무”라며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의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활용성을 높이고, 국제협력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 원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형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가치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기존 통화와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각종 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다만 통화 가치와 연동돼 발행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 간접적으로 늘려 화폐 가치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민

간 기업이 발행을 담당하는 ‘은행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이 유력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혁신을 활성화하고, 높은 운영 효율성과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와 여당 주도로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다.

한국은행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스

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비(非) 구축통화인 원화의 특성과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제력이 높은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에 참여하는 만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통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은행예금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한 토큰을 말한다. 현금과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은행예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만큼 신뢰도도 높다. 또한 사용 즉시 은행이 이를 회수하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 ◆ ‘투 트랙 구조’ 도입될까

신현송 총재는 CBDC와 예금토큰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병존하는 ‘투 트랙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편결제 등 시장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민간 발행 코인이 주도권을 가져가되, 수출대금 결제와 같이 신뢰성이 우선시되는 분야에서는 CBDC와 예금토큰이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형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법 권한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에 있지만, 업계에서는 신 총재가 주장하는 ‘투 트랙 구조’가 실제로 도입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및 영향력이 분명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곧 통화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설계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적인 입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와 같은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한은의 핵심 관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통화 단일성 유지,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의견 제시와 정책 공조 과정에서 법안의 설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쟁점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 ‘불황형 대출’ 카드론, 3개월 연속 증가세

카드사 9곳, 지난달 말 43조 육박  
KB 증가폭 349억, 현대 340억 등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지난달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에 급전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론 잔액이 곧 43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9곳(삼성· 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NH농협카드)의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941억원으로, 43조원에 육박했다. 전월 말보다 920억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다. 카드론은 지난해 12월 42조3240억원에서 올해 1월 42조5850억원, 2월 42조9021억원, 지난달 42조9941억원으

로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는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실행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기준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인 곳은 KB국민카드(+349억원)다. 현대카드(+340억원), 하나카드(+302억원), 롯데카드(+212억원), NH농협카드(+46억원), 비씨카드(+12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한카드(-69억원), 우리카드(-121억원), 삼성카드(-150억원)는 감소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2월 말 카드론 잔액이 42조 9021억원으로 43조원에 근접했고, 3월에도 그 증가세가 이어간 걸 미루어보면 이번 달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을 넘어설

여지가 충분하다”며 “다만, 경기 둔화와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2금융권 쏠림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도 카드론 잔액은 42조 9888억원으로 43조에 육박했으나, 다음달 42조3720억원으로 줄며 43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당시와 달리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라서 돌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 중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카드사에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1~1.5% 이내로 제한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계대출 목표치(3~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라클라체자이드파인’ 투시도.

/GS건설

## 전용 59㎡ 청약 최고가점 74점 당첨

노량진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전용 106㎡ 50점 당첨자도 나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 자이드파인’ (노량진6구역 재개발) 청약에서 전용 59㎡의 당첨 최고가점이 5인 가구 만점인 74점으로 집계됐다. 전용 106㎡의 경우 50점대 당첨자가 나왔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라클라체자이드파인 1순위 청약에서 전용 106㎡의 당첨 가점은 최저 56점, 최고 66점으로 7개 주택형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전용 59㎡은 최저 64점, 최고 74점으로 가점이 가장 높았다. 64점과 74점은 각각 3인가구와 5인 가구 기준 만점이다. 전용 84㎡의 당첨 가점은 62~63점에 분포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각각 32점과 17점을 받는다. 만점은 84점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에 따른 가격 부담이 이번 당첨 가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

형 평형일수록 분양가가 높아 소형 평형에 고가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전용면적 59㎡의 최고 분양가는 22억880만원이다. 전날 당첨 결과를 발표한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20억4610만원)보다 가격이 높다. 오티에르 반포의 최저 당첨 가점은 4인가구 기준 만점인 69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수요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용산구로 쏠리는 추세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지하4층~지상28층 14개 동, 총 14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의도·용산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을 이용할 수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

단지는 노량진 뉴타운 분양 첫 타자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노량진 뉴타운은 최근 1구역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8개 구역 모두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총 9000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조달바꿈할 전망이다. /서채리 인턴기자 cr56@

## ‘자이 굿즈 조명’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GS건설, 매그닷·이그니스 2종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 굿즈로 기획한 조명 제품 2종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부문 위너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인 제품 디자인 어워드로, 약 40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혁신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 제품에는 우수한 디자인 품질을 인정하는

‘Red Dot’을 수여한다.

이번 수상작은 휴대용 마그네틱 조명 ‘매그닷(magDot)’과 테이블 램프 ‘이그니스(IGNIS)’다. 두 제품 모두 자이가 공간에서 축적해온 감각적 경험과 브랜드 철학을 담은 굿즈로 평가받았다.

‘매그닷’은 아파트 전장 히든 조명의 광원을 모티프로 한다. 책상 조명뿐 아니라 키링이나 손목 스트랩 형태로 휴대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도가 있다.

‘이그니스’는 촛불을 켜는 아날로그

적 경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선 테이블 램프다. 자이의 리브랜딩 키워드 ‘Re-ignite’에서 착안해 이름을 붙였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자이가 공간 안에서 축적해 온 감각적 경험을 일상으로 확장한 브랜드 전략이 글로벌 디자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이의 브랜드 굿즈가 단순 사은품이나 판촉물이 아니라 고객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오브제로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채리 인턴기자

# 10년만에 하만 영업이익 30배 이재용 회장 '미래 먹거리' 결실

〈삼성전자〉

이 회장, 하만 9조대 M&A 결단  
작년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카메라 모듈 등 전장역량 강화



삼성 하만의 최신 전장 솔루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전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9조원대 대형 M&A 결단을 내려 인수한 하만이 삼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당시 시장의 우려를 뚫고 인수한 하만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인수 첫째 대비 30배 뛰는 등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지난해 매출액 15조7833억원, 영업이익 1조531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모두 역사상 최대치다.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2017년(매출액 7조1034억원·영업이익 574억원)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2배로 뛰었고 영업이익은 30배에 가깝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9.7%로 나타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이 회장의 통큰 결단과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장을 점찍고 하만 인수

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하만은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은 물론 반도체·이동통신·디스플레이·전자소자 등 부품 경쟁력까지 갖춘 삼성의 역량과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2016년 당시 하만의 인수가 약 9조 4000억원으로 한국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만 인수는 미래차 전장 부품에서 미래 먹거리의 기회를 찾으려는 삼성과 전장 부품에 I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시키려던 하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삼성 하만은 지난해 12월 15억 유로(약 2조 6000억원) 규모로 독일 ZF의 첨단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부를 인수했다. ZF의 ADAS 사업부는 자율주행용 스마

트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20년 이상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축적, 삼성 하만의 자율주행 통합 운용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전자는 헝가리에 1억3118만 유로(약 2300억원)를 투자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연구개발(R&D) 센터 및 생산기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하만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2022년 독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기업 '아포스테라', 2023년 미국 음악 검색 플랫폼 '룬'을 하만 산하로 품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인수를 통해 초프리미엄 브랜드인 바워스앤윌킨스(Bowers & Wilkins)를 비롯한 전설적인 브랜드를 인수했다.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는 B&W 스피커 부문 및 데논, 마란츠, 풀크 오디오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오디오·카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며 세계적인 오디오 명가로 입지를 강화했다.

삼성은 "하만의 오디오 분야의 기술적 깊이와 삼성전자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고객들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최상의 사운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임기모 주캐나다 대사(왼쪽에서 두 번째), 이재규 한화에너지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주 주수상(왼쪽에서 네 번째), 조셉 스카우 앨버타주 경제무역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한화그룹과 앨버타주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

## 한화그룹, 캐나다 앨버타주 포괄적 사업 협력

앨버타주 거점 산업 생태계 확장  
그룹 차원 'CPSP' 수주 확보

한화그룹이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에너지·방산·조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사업 협력에 나섰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과 연계해 현지 산업 파트너십과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에너지 자원 개발과 방산·조선 공급망 구축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 주정부 청사에서 앨버타주 정부와 상호호혜적 투자 기회 발굴과 장기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MOU는 개별 사업 협력을 넘어 앨버타주를 거점으로 한 중장기 투자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화에너지,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 등 주요 계열사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

석유, LNG, 수소, 탄소 포집·저장(CC S), 방산, 조선 분야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MOU의 핵심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과 관련 산업 성장, 공급망 안정성 강화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등 자원 교역 확대를 통해 협력 기반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기반 청정에너지 사업과 탄소 관리 인프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방산 협력 확대 역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캐나다 국방산업전략(DIS)이 목표로 하는 자주적 산업 역량 확보와 장기 유지·보수 및 운용 능력 강화, 지역 기반 방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주 주수상, 조셉 스카우 앨버타주 경제무역부 장관, 임기모 주캐나다 대사, 이재규 한화에너지 대표이사와 한화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K-조선, 쇠빙선 시장 개척... 특수선 수주 탄력

HD현대중공업, 국내최초 쇠빙선 건조계약  
전통적 강국들과 경쟁에서 우위 점해

HD현대중공업이 스웨덴 해사청과 쇠빙전용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조선소 최초로 해외 쇠빙선 시장에 진출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극지 자원 개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쇠빙선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스웨덴 해사청(SMA)과 3억4890만달러(약 5148억원) 규모의 쇠빙전용선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력과 납기, 기술력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

으며 수주에 성공했다. 선박은 오는 2029년 인도될 예정으로, 스웨덴 발트해에서 쇠빙 지원과 선단 운항 보조, 예인 및 빙해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수주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쇠빙선 분야 전통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확보한 성과로, 국내 조선소가 해외 쇠빙선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스웨덴한국 대사관과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의 지원이 더해진 민관 협력 성과로도 평가된다.

쇠빙전용선은 해빙을 분쇄해 항로를 확보하는 특수선으로, 강화된 선체 구조와 높은 추진력, 빙해 대응 선형 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126m,

배수량 약 1만5000톤 규모로 '폴라클래스(PC) 4' 등급의 쇠빙 능력을 갖춘다. 이는 두께 약 1~1.2m 수준의 해빙을 연속적으로 깨며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쇠빙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수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쇠빙 기능이 요구되는 합점과 특수목적선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수주는 당사의 쇠빙선 건조 역량과 사업 통합 시너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사례"라며 "특수선 분야에서 신규 수출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HD현대중, 美 데이터센터 전력시장 진출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 발전설비 공급

HD현대중공업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 공략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겨냥해 엔진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기업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AEG)과 20메가와트(MW)급 '힉센엔진' 기반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

다고 22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684 MW로, 금액 기준 6271억원에 달한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이 체결한 발전용 엔진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물량은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에 활용될 예정으로, 회사가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20MW급 힉센엔진은 대용량 중속 엔진으로, 높은 발전 효율과 신뢰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빠른 기동성과 안정적인 부하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24시간 무중단 운전이 요구되는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계약은 HD현대중공업이 기존 선박용 엔진 중심에서 나아가 데이터센터용 전력 발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춰 힉센엔진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산업용 전력, 비상 및 보조 전원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엔진 기술과 설비 구축·운영 역량을 결합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 삼성·LG, AI 중심 미래 청사진 제시

2026 월드IT 쇼

삼성 디스플레이·모바일 제품 소개  
LG 홈·모빌리티 등 AI 경험 강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26 월드IT 쇼'에서 AI를 앞세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모바일 중심의 기술 혁신을, LG전자는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AI 홈 경험을 강조하며 각기 다른 전략을 드러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월드IT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가해 차세대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와 스페셜 사이니지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갤럭시 S26 시리즈', '갤럭시 버즈4 시리즈', '갤럭시 확장현실(XR)' 등 최신 모바일 제품을 선보인다. 단순 전시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AI 기능을 조작하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구성해 기술 체험도를 높였다.

본관에서는 '마이크로 RGB' TV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마이크로 크기의 RGB LED를 미세하게 배열하고 색상을 독립 제어해 섬세한 색상 표현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하는 기술로, 기존 OLED·QLED와 차별화된 화질 경쟁력을 내세운다.

모바일 체험존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 카메라와 AI 기능을 집중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와 10배 줌 망원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으로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포토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 자연어 입력으로 동물 캐릭터를 생성하고 결과물을 LED 월에 전송하는 체험도 마련됐다.

LG전자 전시관 내부는 ▲AI 홈 허브 '썬큐 온'과 LG AI 가전 및 IoT 기기들로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체험하는 'AI 홈' ▲가전을 항상 깨끗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구독 케어 솔루션을 소개하는 '구독 광장' ▲AI 가전의 핵심 부품 기술력을 강조한 '테크 라운지' ▲TV, PC, 모니터,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홈오피스 공간에서 AI 홈 허브 '썬큐 온'을 중심으로 AI 가전과 IoT 기기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돼 상황에 맞게 자동 제어되는 AI 홈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AI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슈필라움'을 전시해 AI 홈 경험이 차량 등 이동 공간으로 확장되는 미래 모습도 소개한다. AI 홈 허브 '썬큐 온'을 기반으로 집과 차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고객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일관된 AI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수출·투자·사업화로 이어진 AI 혁신... 산업 생태계 한눈에

## 현장르포

### 2026 월드IT쇼

과기부, 국내 최대 ICT 전시회 개막  
삼성·LG·통신3사·카카오·기아참여  
‘행동하는 AI’ 내걸고 미래상 제시  
피지컬 AI·반도체·로봇 특별관 조성  
가우디오랩 등 혁신기업 수상 영예  
수출상담회·인재양성 행사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서비스를 총망라한 ‘2026 월드IT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월드IT쇼는 ICT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다.

올해 월드IT쇼 슬로건은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AI, 현실을 움직이다’이다. 인류의 삶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박윤영 KT 대표이사(가운데)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IT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전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민선기자

로 변화시키고 있는 ‘피지컬 AI 대전환’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삼성전자·LG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카카오·기아 등의 국내 대표 글로벌 기업과 마음AI·대동 등 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 기업 등이 전시에 참여했다. 올해는 ‘어워드테

크관’, ‘글로벌관’, ‘엔터테크관’, ‘K-AI 반도체 생태계관’ 등 4개의 특별관을 새롭게 구성하여 전시 콘텐츠를 한층 강화했다.

월드IT쇼 개막에 맞춰 열린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은 K-콘텐츠 해외 수출 과정의 음원 분리·교체, 더빙, 자막 등을 AI 기술로 자동화한 플랫폼을

개발한 가우디오랩 주식회사가, 국무총리상은 생성형 AI 기반 챗봇으로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법률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로엔컴퍼니가 수상했다.

또한, 이동통신망의 코어(Core)망부터 무선접속망(RAN), 기지국단의 셀사이트라우터(CSR)까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별도 전용 하드웨어 없이 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기업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월드IT쇼에 참가한 AI·ICT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월드IT쇼 혁신상에는 반도체 공정 및 공정장비 진단용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 주식회사 비엔에스알(BNSR)을 포함한 10개 기업이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에서는 피지컬 AI 등 산업 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들은 AI가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

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ICT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2026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CT 고급인재양성 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ITRC) 인재양성대전 2026’을 동시에 개최하여, ICT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AI·ICT 유망 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ICT 바이어 수출상담회’도 개최됐다. 영국, 중국, UAE 등 14개국에서 해외 바이어 50개사가 참여했으며, 국내기업 190여개사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SKT, 엔비디아와 초거대 AI 학습 협력 성과 공개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서 사례 발표  
A.X K1 학습에 핵심 솔루션 도입  
후속 K2·멀티모달 연구도 본격화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성과를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 테크니컬 패널 세션을 통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2021년 공개한 A100 GPU 기반 슈퍼컴퓨터 ‘타이탄’ 구축부터 데이터·인프라·학습 환경 전반에 걸쳐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후 SKT 독자 AI 모델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AI 모델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담당자들과 원격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SK텔레콤

수행하며 매개변수 5190억개(519B) 규모의 초거대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 학습에 엔비디아 네모트론

데이터셋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SKT는 대규모 모델 분산 학습 프레임워크인 ‘메가트론 LM(Megatron-LM)’과 학습 데이터 준비·정제를 위한 엔비디아 네모 큐레이터를 활용해 초거대 AI 학습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SKT가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고도화하고,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워크의 완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 또한 전문가 혼합(MoE) 같은 신형 구조로 초거대 모델을 만든 경험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 인프라 관련 정보를 공유, 대규모 학습을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SK텔레콤 모델 개발 부서와 엔

비디아의 기술 지원 부서는 격주 단위로 소통하며 학습 인프라의 안정성, 성능 향상, 최적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후속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 학습에도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한편, 양사 기술 수준 고도화에 필요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모델에 활용될 멀티모달과 비전 언어모델(VLM) 등 차세대 기반 기술 영역에서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 선보인 A.X K1의 후속 모델인 A.X K2 개발 등 국내 소비자 AI 생태계를 위한 협업도 이어간다.

/조민선 기자

## 삼성SDS

### 업무 자동화부터

### 시스템 현대화까지

업무 자동화·개발 혁신 해법 제시

삼성SDS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과 IT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삼성SDS는 22일 금융 기업 고객을 초청해 ‘삼성SDS 인터스트리 데이’ 세미나를 열고,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소개했다. 인터스트리 데이는 금융, 공공, 제조·유통, 국방 등 주요 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흐름에 맞춰 업무 자동화와 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서현 기자

## SKB ‘B tv+’ 누적 시청 1억시간 돌파

출시 21개월 만에 이용 지표 상승세

SK브로드밴드는 IPTV 서비스 B tv의 구독형 VOD 상품인 ‘B tv+’의 누적 시청이 1억 시간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B tv+’는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약 20만 편의 콘텐츠를 추가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상품이다.

OTT 구독료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결합한 ‘B tv All+’ 요금제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이용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B tv+’를 월 5500원 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지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7월 출시 이후 약 21개월 만에 누적 시청 1억 시간을 기록했으며, 가입자의 콘텐츠 이용량은 미가입자 대비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B tv 해



SK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 B tv의 구독형 VOD 서비스 ‘B tv+’가 누적 시청 1억 시간을 돌파했다.

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콘텐츠 수급 전략도 이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신 작품을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인기 콘텐츠를 재편성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B tv를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최대 4대 기기에서 동시 시청이 가능한 점도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seoh@

## LGU+, AI 서비스 전반 고도화

몽고DB와 데이터 관리 협력 체계 구축

LG유플러스가 데이터 고도화를 인공지능컨택센터(AICC)에서 AI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 몽고DB와 ‘AI 서비스 관련 데이터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AI 컨택센터(AICC)에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몽고DB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몽고DB 아틀라스’를 통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과거 고객과의 상담 내용과 대화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고객 응대를 지원하고, 상담이 종료되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과 상담 코드 추천 등 후속 업무를 돕는다.

업무 효율 성과도 확인했다. 평균 상담 처리 시간을 약 7% 단축하고, 자원

효율 또한 약 30% 개선됐다.

이에 따라 몽고DB와 협력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경험을 전사 AI 서비스로 확대한다. 분산된 데이터 운영 구조도 개선해 AI 서비스 응답 효율과 운영 안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몽고DB는 AI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배포, 확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AI 특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 텍스트, 대화 로그, 고객 이력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고객 문의와 맥락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AI 서비스 개선을 넘어 레거시 시스템을 AI 환경에 맞는 구조로 전환하는 ‘아키텍처 현대화’도 협력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 엔씨

### 하반기 글로벌 출격

### ‘아이온2’ 승부수

권역별 서버·10개 언어 지원

엔씨는 MMORPG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 일정을 올해 하반기로 확정하고 PC 기반 MMORPG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스팀과 퍼플을 통한 PC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오늘부터 스팀 공식 페이지에서 위시리스트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엔씨는 북미, 남미, 유럽, 일본 등 주요 권역별 서버를 구축하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간체와 번체 등 총 10개 언어를 지원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AMERICCI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 소사역 더블 역세권... GTX-B 수혜 기대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DL이앤씨**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

DL이앤씨는 경기 부천 원미구 소사동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면적별로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단지 바로 앞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다. 소사역을 통해 마곡과 구로, 가산 등 G밸리업무지구를 비롯해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GTX-B 노선(2031년 개통 예정)이 정차하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이 한 정거장 거리다.

단지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사우나와 피트니스, GDR이 적용된 실내골프연습장 등 웰니스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 올데이 다이닝,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등이 배치된다.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프리미엄 조정 설계인 '드포엠(dePoem)'도 적용된다. 단지 중앙에 잔디마당, 수공간, 휴게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드포엠 파크(dePoem Park)'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과 미스트 분사 시설이 있는 '미스티포레(Misty Foret)'가 도입된다.



세대 내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플랫폼 'C2 하우스' 혁신 설계와 입주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 셀렉션'이 적용된다. 여기에 세대 내부는 물론 단지 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부천은 비규제지역이다.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학세권·공원·생활인프라 모두 갖춘 단지

**더샵 대전 관저아르테  
포스코이앤씨**

서대전IC·도안대로 접근성 우수해 지역이동 수월

포스코이앤씨는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더샵 관저아르테'를 선보인다. 관저더샵2차 이후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더샵 브랜드 단지다.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총 951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 등이다.

단지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랩 진잠네거리역(2028년 개통 예정)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

다. 서대전IC·도안대로 접근성이 좋아 대전 주요 업무지구 및 외곽 지역 이동이 모두 수월하다. 단지 인근에는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전 제3시립도서관(계획)도 인접했다.

생활 인프라로는 단지 주변에 병·의원, 학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다양하며, 근린공원·체육공원 등 녹지 및 여가 공간도 풍부하다.

더샵 관저아르테는 외관에는 포스코 프리미엄 강재인 포스맥(PosMAC) 물결 패널을 적용해 단지 전면의 입체감과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세대 내부는 공간별 라이프스타일 대응형 평면 상품을 적용해 생활 공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거실에는 알파룸 확장을 통한 와이드 리빙 옵션을 적용해 개방감을 강화했으며, 주방은 대면형



주방과 히든키친 옵션으로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했다. 욕실에는 건식 세면공간 옵션을 도입해 쾌적함을 높였다. 또한 룸인룸+팬트리, 올인원 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 설계와 광풍 안방 구성을 통해 중대형 평형 수요까지 반영했다. 거실·주방·욕실 마감은 선택형 옵션으로 구성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2029년이다.

## 삼성 배후주거지에 행정타운·국제학교까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우미건설**

4베이 위주 설계, 오픈발코니로 개방감 극대화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6블록에서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를 내놓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 단지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

거지다. 특히 단지에서 도보권에 평택시청·시의회(공사중)가 이전하는 행정타운과 국제교류단지가 계획되어 있다.

교통 여건은 평택지제역에서 SRT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 평택지제역)과 평택고덕IC를 통해 서울·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옆으로 고덕8초(예정)를 비롯해 도보권 내 중·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인근 고덕국제학교 부지에 들어설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법인으로 미국 워싱턴주의 명문 사립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이 평택시와 MOA를 체결했다. 해당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와 함께 도보권에 근린상업용지와 업무·의료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 내 문화공원(계획)과 함박산 중앙공원 등 녹지 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는 4베이(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됐으며, 오픈발코니(해당 세대)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 단지로 세대당 1.5대의 주차공간으로 설계됐다.

## 호수 조망·녹지 품고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계룡건설**

대형마트·병원·백화점 갖춘 천안 핵심 입지

계룡건설은 충남 천안시 업성2구역 1·2블록에 '엘리프 성성호수공원'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1㎡로 공급된다. 1블록 546가구, 2블록 619가구(임대 포함) 등 총 1165가구로 공급된다.

엘리프 성성호수공원은 천안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약 52만㎡ 규모의 성성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해 호수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다. 성성호수공원 일대는 천안 내에서도 조망과 쾌적성이 뛰어

난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단지 일부 가구에서는 성성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삼성SDI, 천안 일반산업단지, 아산정당디스플레이시티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춰져 있다.

교통 여건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부성역 개통이 예정돼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아산현충사IC, 1번국도 등을 통해 광역 이동이 수월하며, KTX·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 이용도 가능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 인프라로는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초·중·고교 설립이 계획됐으며, 기존 학교와 더불어 향후 교육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을 비롯해 단국대병원, 갤러리아백화



점, 천안시청 등이 분포해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11㎡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일조와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한 4베이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마련된다.

# 재개발·3기 핵심 물량 봄 분양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계획지구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오게 되고 있다. 신축 공급이 희소한 수도권에서도 3기 신도시 고층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대전과 천안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모두 갖춘 단지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높은 분양가에도 입지적 장점이 우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



# 3기 신도시 쏟아진다 시장 '개막'

분양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다. 오  
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서울  
수도권 재개발 단지와 3기 신도시,  
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  
을 비롯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양 창릉과 규제 지정을 피한 부천 등  
안 등에서도 대규모 브랜드 단지가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  
보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사비 상승이  
있는 공급 지표까지 악화되고 있  
점과 브랜드 신뢰도가 확실한 곳은  
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인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초품아 입지·명문학군... 동작구 재개발 분양

### 아크로 리버스카이 DL이앤씨

지하철 1·9호선 환승역 노량진역 더블 역세권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원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아크로 리버스카이'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285가구다. 타입별로는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이다.

아크로 리버스카이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9200여가구의 신형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는 중앙에서 직선거리 600m 내에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역까지 두 정거장, 시청역까지 네 정거장, 고속터미널역까지 두 정거장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를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여의상류IC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교육 환경으로는 영화초교와 연결한 '초품아' 단지며,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송의여중, 송의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는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이마트 여의도점, 이마트 영등포점, 더현대 서울, IFC



몰,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 접근성도 좋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전용 44·51㎡의 경우 소형 타입임에도 팬트리와 마러내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전용 59㎡A타입은 4베이(Bay) 판상형 구조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다. 공간에 취향을 더한 인테리어 솔루션 '디 셀렉션(D Selection)'을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안한다.

## 최고 46층 송도 업무지구 마지막 주거단지

### 더샵 송도그란테르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1544가구·주거형 오피스텔 96실

포스코이앤씨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더샵 송도그란테르(G5-1·3·4·5·6·11블록)'를 분양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국제업무지구(IBD)에 공급되는 마지막 주거단지다.

더샵 송도그란테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6층, 총 1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15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96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84~198㎡로 중대형 위주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한 정거장 거리의 인천대입구역에는 GTX-B노선(예정)이 추진 중이다. 제3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 및 수도권 전반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코스트코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아트포레 등이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는 예송초, 예송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이 있으며, G5블록 내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G5블록은 주상복합 단지와 함께 약 19만㎡ 규모의 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는 송도 워터프론트가 자리했다.

단지 외관은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와 협업해 워터프론트의 흐름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반영한 입체적 디자인을 구현했다.



내부 설계는 1·11블록은 2.4m 천장고와 3면 개방형 구조(일부 세대)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전용 100㎡ 이상 전 세대에서 워터프론트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150세대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해 공원과 호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3·6블록은 2.5m 천장고와 전 세대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했으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12세대에 복층형 구조를 도입했다.

## 스타필드·롯데마트 인접... 생활 편의 갖춘 단지

###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현대엔지니어링

서해선 시흥대야역 도보로 약 250m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시흥대야역 인근에서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를 선보인다.

단지는 경기 시흥시 대야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74㎡ 24가구 ▲84㎡A 377가구 ▲84㎡B 29가구 등이다.

단지는 서해선 시흥대야역까지 약 250m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 지하철 1·7·5·9호선으로 환승이 수월해 여의도,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시흥대야역에는 서울 목동역까지 연결되는 신구로선(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이 계획돼 있다.

단지 앞 버스 정류장을 통해 시흥 시내, 물론, 부천, 안산, 안양 등 인근 지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차량 이용 시에는 인근 시흥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인근에 롯데마트와 스타필드시티, CGV,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신천연합병원 등 다양한 쇼핑·여가·의료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부천, 광명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이미 형성된 대형 상업시설과 다채로운 문화 인프라를 이요할 수 있다. 소래산 산림욕장, 은계호수공원, 인천대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대야초, 대흥중, 소래고 등이 가까이 위치했으며, 인접한 은계지구 내에는 시흥 최초 과학계열 특수목적 고인 시흥과학고가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전 세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풍부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했다.

## 창릉 첫 브랜드 단지... GTX·고양은평선 예정

###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우미건설

화정·행신동 인프라 공유... 초등학교 예정

우미건설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공공택지지구에서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를 내놓는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처음으로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는 고양 창릉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앞서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다.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본청약을 진행한다.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행신동, 원흥동, 화전동 일대 약 811만 9000㎡ 부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총 3만 8000가구, 9만 2000여 명이 수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며, 서울 도심과 가까운 입지가 특징이다.

단지 남측으로는 고양~은평선(2031년 예정) 신설역이 계획돼 있으며, GTX-A 창릉역(2030년 예정)도 인접해 있다. 인근 평택과주고속도로(서울-문산) 흥도IC, 3호선 화정역, 자유로 등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우수하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지구 내에서도 화정·행신동과 인접한 서쪽에 위치해 이미 형성된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는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으며, 화정동 학원가와 고



양시립화정도서관 등도 가깝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통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확대했고, 타입별 현관·복도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LH가 추진하는 '비스포크' 시범사업 대상 단지로 입주자 맞춤형 옵션 설계가 적용된다.

건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마련된다.

# 퇴직연금, 안전 버리고 수익으로... ETF에 뭉치돈 몰린다

수익추구형 DC형·IRP로 머니무브 은행·보험 비중 줄고 증권사 증가 미래에셋 적립액 42조로 급성장

#.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모(36)씨는 최근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국내 코스피와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담았다. 김씨는 원래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했는데,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방향을 틀었다. 김씨는 “주변 지인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상승장에서 나만 ‘벼락 거지’ 될 것 같은 불안으로 원리금 보장을 포기하고 수익률을 쫓기로 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자금이 ‘안전제일’ 버리고 수익률을 쫓고 있다. 은행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추구형(원리금비보장)으로 뭉치돈이 움직이는 ‘머니무브’가 확산하고 있다.

## ◆내 퇴직연금은 내가 책임진다

2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15.1% 증가한 496조8021억원으로 집계됐다. 확정급여형(DB)이 228조945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확



서울 여의도 전경.

/메트로 DB

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IRP와 DC형 적립금은 전년 대비 각각 약 32조원, 23조원 급증하며 DB형(14조원)의 성장 폭을 크게 웃돌았다.

2020년 18%에 불과하던 증권사 비중은 2025년 3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은행 비중은 68%에서 59%로 9%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업권 비중도 14%에서 9.1%로 낮아졌다. 적립금 증가율도 증권사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과 보험은 각각 15.4%, 7.4%로 집계됐다.

연금 투자의 경우 노후 소득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제는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자금을 옮기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적립액은 42조4411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40조원대 적립액은 미래에셋증권

이 유일하다. 전체 금융권 유입액 13조원 중 33%(4조원)가 미래에셋증권 탕했다.

##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기 나섰다

수익률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계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해 성과도 챙기는 방식)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실적배당형의 비율은 72%로 원리금 보장형(28%)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2020년 말에는 원리금 보장형이 45.2%였고 실적 배당형이 54.8%였지만 5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실적 배당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운용 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유형이고, 원리금 보장형은 예금이나 저축은행, 국채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분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DC형 적립금 잔액이 16조2903억원으로 전체 4개 사업자 중 1위다.

수익률 중심의 운용은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중장년층이 먼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DC·IRP형에 가입한 40대 가입자의 실적 배당형 비율은 75.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고, 50대 역시 72.8%에 달했다. 2020년 말 당시 40대(62.3%)와 50대(55.4%) 비율과 비교하면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20·30세대도 비슷했다. 30대는 69.6%, 20대는 57.1%였다. 2020년 말 30대(58.1%), 20대(44.5%)와 비교하면 뚜렷한 변화다. 특히 이들의 자산 10건 중 6건은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에 쏠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확산으로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는 DB형의 매력도 줄어들고 있다”며 “반면 DC형·IRP는 ETF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이 늘어나 가입자가 직접 운용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사용자 중심의 DB형에서 가입자 중심의 DC형·IRP로 자금 이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AI, 활용이 핵심... 피지컬AI 투자, 병목해소 기업에 주목”

삼전·하닉 임원 173명 주식가치 10억 넘겼다

NH-Amundi자산운용 전략 간담회 “전 산업 밸류체인 변화로 접근해야”

NH-Amundi자산운용이 피지컬AI 시대의 투자 방향으로 ‘병목 해소 기업’과 ‘AI 활용 기업’을 제시했다. 단순히 AI 기술을 만드는 기업보다 실제 산업에 적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핵심 투자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NH-Amundi자산운용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피지컬AI 투자 전략 간담회’를 열고 관련 투자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지컬AI를 단일 테마가 아닌 전 산업 밸류체인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동근 ETF운용팀장은 “피지컬AI는 인간의 피로·부주의·인지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이라며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은 시작일 뿐, 제조·물류·헬스케어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



최동근 ETF운용팀장이 피지컬AI 투자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

했다.

그는 피지컬AI 투자 유망 분야로 ▲에너지 ▲광통신 인프라 ▲반도체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등 5대 테마를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와 광통신은 AI 인프라의 핵심 병목으로 지목됐다. 최 팀장은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확보 자체가 경쟁

력”이라며 “추론형 AI 확산으로 데이터 대역폭이 병목이 되면서 광통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역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뿐 아니라 CPU, 아날로그 반도체로 확산되고 있다”며 “전력 효율을 위한 전력반도체도 중요한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AI모델과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AI를 잘 쓰는 기업’이 핵심 투자처로 꼽혔다. 최 팀장은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사업에 적용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기업, 즉 ‘AI 하이퍼 어답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 제조업 기업들이 피지컬AI 시대 핵심 부품사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투자 전략 키워드로 ‘제국주의 2.0’도 제시됐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원자재와 핵심 기술이 무기화되면서 대만·일본 등 핵심소재 기업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HANARO 글로벌피지컬AI 액티브 ETF’는 상장 이후 약 1년간 127%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나스닥100 대비 78%포인트 높은 성과를 거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작년 10월 31명서 5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급등 영향으로 두 회사 임원의 주식 재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식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긴 비오너 임원이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오너 임원 가운데 주식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1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0월 조사 당시 31명과 비교해 6개월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9만88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120% 이상 상승했고, SK하이닉스 역시 51만원에서 122만4000원으로 약 140% 급등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113명, SK하이닉스 60명의 주식평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삼성전자는 6개월 전 17명에서 96명이 늘어나며 6배 이상 증가했고, SK하이닉스도 14명에서 60명으로 4배 넘게 확대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보유 주식 가치가 약 215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이 132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SK하이닉스에서는 곽노정 사장이 103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오너 일가의 주식 재산은 조 단위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만 약 21조30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이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5조98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9조9807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9조1423억원)이었다.

/신하은 기자

## 삼성운용 ‘美S&P500’ 수익률 60% 달성

100개 핵심 종목 골라 전략 투자

삼성자산운용은 상장 1주년을 맞은 KODEX 미국S&P500액티브가 수익률 60.3%를 달성, S&P500 지수 대비 17.8%포인트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ETF의 1개월 수익률은 8.4%, 3개월 9.8%, 6개월 15.6%로 S&P500액티브 ETF 상품 중 가장 높았다.

월별로 보면 지난 1년간 이 ETF가 S&P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9개월에 달했다.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월의 평균 초과수익은 +1.80%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월의 평균 하회성과는 -0.51%포인트로 제한됐다.

S&P500 지수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으로 불리는 대표지수다. KODEX 미국S&P500액티브는 미국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100여개 종목에 압축 투자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섹터와 종목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



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다.

삼성자산운용은 해당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는 몇 가지 전략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S&P500 지수는 총 500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지만, 이 상품은 약 100개의 핵심 종목만 골라 투자했다. 실질적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상위 종목이기에 불필요한 비중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 또한, 관세 갈등, 금리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 이슈가 발생하면 투자 비중을 조절해 위험을 관리했다는 부연이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앞으로도 미국 S&P500지수에 투자한다는 기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특정 종목 중심의 과도한 매매를 지양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한 초과 수익을 추구하여 장기 투자에서 더 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1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 이정복 “근로자 ‘작업 중지권’ 당연한 권리”

〈한국서부발전 사장〉

태안발전 본부서 ‘안전동행’ 행사  
근로자 주도 안전관리 성과 공유  
작업중지권 신고건수, 3배 확대  
신고 창구 다변화·포상금 등 결과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과 협력사 대표, 협력사 근로자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은 지난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정복 사장과 협력사 대표 및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 ◆“위험하면 멈춰라”...작업중지권 신고 1년 새 3배 늘어

이번 행사에서 서부발전은 근로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

는 ‘작업중지권’ 신고 건수는 지난해 27건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9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

이는 서부발전이 원스톱 세이프티콜, 오픈채팅방 등 신고 창구를 다변화하고,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과 불이익 금지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말 도입된 ‘안전조치요

구권’ 역시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작업 전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5건의 요구 및 조치가 실무에 반영되는 실적을 거뒀다.

## ◆이정복 사장 “협력사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

이정복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위험하면 멈추고 의심되면 묻고 보고하며, 불안하면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련 지침에 보호,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점검에 나선 이 사장은 근로자 대표와 함께 작업장을 직접 돌며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즉석에서 조치했다. 그는 “안전의 관건은 실천이며 결국 작업자의 행동으로 완성된다”며 “협력사의 안전이 곧 서부발전의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부발전은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안전문화 유도에도 공을 들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태안발전본부 소속 8개 상주 협력기업 근로자 1131명에게 1인당 12.2만원씩, 총 1억 383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코트라는 현지시각 2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026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Future Mobility Partnering Event)’을 개최했다.

/코트라

## 코트라 북미 車 공급망 재편 45개社 수주 기회 창출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 열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디트로이트가 한국 자동차 부품사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북미 자동차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뛰어난 제조 역량과 ICT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그 빈 자리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이달 21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디트로이트에서 ‘2026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Future Mobility Partnering Event)’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의 ‘수퍼커넥트’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전통 완성차 및 글로벌 1차 협력사의 공급망 재편 수요를 포착해 북미 양산 공급망 수주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핵심 파워트레인과 전기차 부품, 고정밀 조향·제동 시스템 등 자동차 하드웨어 분야 제조 역량이 뛰어난 국내 기업 4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을 맞이한 바이어 측은 GM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OEM) 기업과 북미 상위 100대 1차 협력사 등 글로벌 기업 40개사로 구성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인천항만공, ‘해운·물류 상생펀드’ 100억 규모로 증액

중동발 유가에 연료비·물류비 증가  
기업 당 최대 5억, 저금리 융자 지원

인천항만공사가 ‘동반성장 상생펀드’의 지원 규모를 긴급 확대해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협력기업 및 해운·물류 기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늘린다.

동반성장 상생펀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사업이다. 시중은행 3개사(하나, 수협, 기업은행)와 협약을 통해 평균 1.52%의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기존 80억 원 규모로 운영하던 상생펀드를 금융회사들과의 협력하에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증액했으며, 연료비·물류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협력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원 인천항만공사 경영실장은 “해운·항만·물류 업종은 유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군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상당 및 신청은 ▲하나은행 남동기업센터 ▲기업은행 인천지역본부 ▲수협은행 경인지역금융본부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공사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차질 대응을 위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북항 벌크부두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

이다.

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인천항 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15일 공사는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 북항 벌크부두 운영사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정세에 따른 항만운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 북항 주요 벌크부두 운영사가 참여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북항 운영 현안 및 중동 사태 영향을 비롯해 1분기 간담회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지원 필요사항도 공유했다. 공사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공사 운영본부 부사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경규 공사 사장이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직접 찾아, 해운 시황 및 물동량 변화 추이 등을 살폈다.

이 사장은 “중동지역 정세변화가 해운·물류시장과 인천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체와 함께 물동량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또 지난달 12일에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4곳(ECT, HJ IT, ICT, SNCT)과 만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무보, 수출기업 미수채권 관리 돕는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수채권 정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최근 개편된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보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진청, 농산물 수출 전 과정 현장밀착 지원

‘K-농산물 수출 기술지원단’ 발대식

농촌진흥청이 수출 전 과정에 걸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남 논산광석농협유통센터에서 ‘K-농산물 수출 기술지원단 발대식’이 열렸다.

기술지원단은 수출 전 과정에 민관 협력 기반의 밀착 지원을 제공해 품질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프리미엄 수출단지 육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딸기·포도·배 등 수출 전략 품목과 단감·복숭아·키위·감귤·참외·고구마 등 유



수출용 K-딸기.

/뉴시스

망 품목을 포함한 총 9개 품목, 18개 프리미엄 수출단지를 선정한다.

운영 방식도 기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수요자(수출 경영체·통합조직)와 공급자(농진청·유관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품목별 민관 기술지원반’ 체계로 전환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 aT 학부모·전문가 108명과 초중고 급식 안전관리

제9기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6년도 국민안전급식점검단’을 108명 규모로 꾸렸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학부모, 식약처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점검단은 전국 초중고 급식업체의 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선다.

22일 aT에 따르면 점검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 안전·위생점검을 위한 제9기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지방정부·교육청 관계자 합동점검단(58명) ▲ 학부모 참여 ‘학부모점검단(30명)’ ▲ 전문가 참여 ‘급식점검단(20명)’ 등 108명으로 예년 대비 확대 편성됐다.

급식점검단은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위촉된 점검단은 효과적 현장점검뿐 아니라,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현장지도 및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게 된다. 이들이 개선의견을 내면 aT가 후속 조치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 “장난감·안마의자 반값”... 유통업계, ‘가정의 달’ 맞이 분주

롯데백 캐릭터 테마파크 연출  
현대백 외국인 관광객 버스 운영  
SSG닷컴 선물포장 서비스 강화  
11번가 ‘해피 패밀리 워크’ 운영

고물가와 고환율 등 대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통업계가 5월 특수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 이커머스 업체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겨냥한 외국인 마케팅은 물론, 어린이날을 앞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파격적인 할인과 체험형 콘텐츠를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쇼핑 워크’를 개최한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개별자유여행(FIT)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결제 수단별 맞춤형 혜택을 전 점으로 확대했다. ‘위챗페이’ 결제 시 즉시 할인 및 5% 환율 우대 쿠폰 증정, ‘라인페이’ 대만 결제 시 10%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택스리펀(Tax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내달 6일까지 대규모 완구 할인 행사를 연다. /롯데마트

Refund) 금액 10% 추가 지급 프로모션을 본점과 잠실점에서 진행하며, 외국인 선호 뷰티 브랜드 대상 상품권 행사도 병행한다.

디지털 접점 확대를 위해 중국 ‘고덕지도’, ‘따종디엔핑’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샤오홍슈’ 마케팅을 강화해 중화권 고객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외국인 VIP 멤버십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푸드마켓과 F&B(식음료) 할인권을

확대했다. 중화권 고객에는 현지 간편결제 시스템인 ‘유니온페이(중국)’과 ‘라인페이(대만)’를 도입, 캐시백과 환율 우대를 적용했다.

현대백화점도 유니온페이를 마련하며 외국인 멤버십인 ‘H포인트’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 핵심 점포인 ‘더현대서울’에서는 공항과 서울을 오가는 외국인 환승객을 잡기 위해 왕복 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가정의 달을 겨냥한 마케팅도 있다.



‘해피 패밀리 워크’ 프로모션 /11번가

롯데백화점은 아티스트 베르디와 협업해 전 점포를 캐릭터 테마파크로 연출하며, 잠실점 기프트 하우스 팝업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통해 단순 쇼핑물 이상의 ‘문화 공간’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5월 6일까지 전국 42개 점포에서 대규모 완구 할인 행사를 연다. 레고, 헬로카봇, 캐치! 티니핑 등 인기 브랜드 완구 2000여 종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레고 인기 모델을 최대 40% 할인하며, ‘오늘좋은 톱클블럭’과 ‘레고 피카츄’ 등 단독 신상품을 출시한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레고), 대구울하점(잔망루피), 파주점(마이크로 키보드) 등에서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불거리를 제공한다.

이커머스 업체는 일찌감치 선물을 준비하는 ‘얼리버드’ 고객 잡기에 나섰다. SSG닷컴은 뷰티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27% 증가함에 따라 인기 브랜드 타임투가와 선물포장 서비스를 강화했다. 11번가 역시 ‘해피 패밀리 워크’를 통해 안마의자를 최대 61% 할인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이러한 공세는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가정의 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원가 상승 압박이 여전한 만큼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 유통가의 활기가 민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CJ프레시웨이, 프리미엄 유제품 유통 확대

카페·베이커리 식자재 경쟁력 강화  
“고객사의 상품 선택 폭 넓혀갈 것”

CJ프레시웨이가 프리미엄 유제품 유통을 확대하며 카페·베이커리 식자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최근 디지털 소비가 일상화되고 메뉴 트렌드 변화가 빨라지면서 카페·베이커리 시장에서 활용되는 유제품 식자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크림, 버터, 치즈 등 관련 상품 수요가 확대되며 CJ프레시웨이의 2025년 유제품 상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카페·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및 디저트 전문 판매점 등 다양한 채널을 중심으로 관련 상품 공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독점 유통 브랜드 ‘데빅(Debic)’이다. 데빅은 네덜란드 유제품 전문 기업 프리슬랜드캠프나(FrieslandCampina) 소속 프리미엄 브랜드



CJ프레시웨이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에 참가해 베이킹 시연회를 진행했다. /CJ프레시웨이

드로, 지난 2023년부터 CJ프레시웨이가 국내 유통을 맡고 있다. 이후 카페·베이커리 채널을 중심으로 공급을 지속 확대해 온 결과,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CJ프레시웨이는 데빅의 브랜드 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유통 확대를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19

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에 참가해 데빅 주요 제품을 활용한 베이킹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CJ프레시웨이는 덴마크 B2B 프리미엄 유제품 전문 브랜드 ‘알라프로(ArlaPro)’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상품을 지속 발굴하며 유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 고객사의 다양한 메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프리미엄 유제품은 카페·베이커리 메뉴의 완성도와 차별화를 높이는 핵심 식자재”라며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지속 확대해 고객사의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메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하이트진로 “소방 영웅들 응원합니다”

‘감사의 간식차’ 활동 개시

하이트진로가 올해도 소방 영웅들을 향한 응원을 이어간다.

하이트진로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6 감사의 간식차’ 활동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대구 중앙119구조본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17개 소방서를 순회할 예정이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감사의 간식차’는 하이트진로가 2018년 소방청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표적인 소방공무원 응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행사에는 장인섭 대표가 참여해 배식 봉사를 하며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현장에서 직접 전했다.

장인섭 대표는 현장 소방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격려를 전하고 “매일 고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가운데 이번 감사의 간식차 행사가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



하이트진로 장인섭 대표가 지난 21일 대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감사의 간식차’ 행사에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에게 간식을 배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트진로는 다양한 활동 및 지원으로 지속적인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올해는 지난해 현장 소방관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200인분을 확대 진행한다. 10월까지 약 1800인분의 스테이크도 시락, 과일,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품 이벤트를 통해 황동잔, 테라 X 손흥민 아이스백, 접이식 의자, 양말, 텀블러, 스쿠너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해 현장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20주년... 리뉴얼 제품 선보

‘100% 암반수’ 소주 가치 강조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소주 ‘처음처럼’이 출시 20주년을 맞아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화한 리뉴얼 제품(사진)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출시 초기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처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점을 뒀다. 라벨에는 어린 새와 새싹 등 초기 핵심 자산을 집목해 정통성을 살렸으며, 물방울 형상의 디자인으로 대관령 암반수를 사용한 ‘부드러운 소주’라는 정체성을 시각화했다. 또한, 병 목에 ‘20th ANNIVERSA



RY’ 네 라벨을 부착해 기념비적 의미를 더했다.

처음처럼은 저도주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췄다. 단순히 도수만 낮춘 것이 아니라, 100% 암반수에 쌀 증류주와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

를 첨가해 쓴맛을 줄이고 목넘김을 더욱 부드럽게 개선했다. 아울러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마케팅도 강화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제품의 핵심 요소인 암반수를 알리기 위해 강릉공장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10층 라운지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대관령 기슭 암반수를 찾아 떠나는 초현실적 경험 제공한다. 또 나만의 잔 만들기, 소주 칵테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한다.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브랜드 체험관은 2023년 오픈 이후 누적 방문객 3만5000명을 돌파한 체험관은 강릉의 대표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 암반수로 만든 처음처럼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 롯데컬처웍스, 뮤지컬 사업 밸류체인 확장

쇼노트 업무협약... ‘세이렌’ 제작

롯데컬처웍스가 공연 제작사 ‘쇼노트’와 손잡고 뮤지컬 제작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 20일 제작사 쇼노트와 뮤지컬 공동 제작 및 향후 공연 콘텐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컬처웍스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극장 운영 사업에서 더 나

아가 직접적인 공연 IP 기획과 제작까지 뮤지컬 사업 밸류체인을 확장하며 콘텐츠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본격화한다.

이번 파트너십의 첫 결실은 뮤지컬 ‘세이렌’으로 롯데컬처웍스가 작품 초기 단계부터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사는 대본 개발과 캐스팅은 물론 마케팅과 홍보, 해외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CDMO '초격차' 리더십 굳힌다

1분기 매출 1.2조, 영업이익 5807억  
각각 전년비 25.8%, 35% 급증

송도·美 록빌 중심 생산체계 구축  
차세대 바이오 포트폴리오 다변화  
MCB 생산·백터 제작 내재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 행진이 이어졌다. 견고한 실적을 성장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현지 첫 생산거점 확보, 국내 7조원 규모의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 등을 양대 축으로 삼아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의 '초격차' 리더십 굳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6년 1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2571억원, 영업이익은 5807억원을 올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5.8%, 영업이익은 35.0% 급증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당기순이익은 46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공장 풀가동 유지와 5공장 가동률 확대(램프업)를 반영해 지난 1월 제시했던 올해 연매출 성장 가이드스 15~20%를 유지했다. 해당 전망에는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실적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생산(CM

O) 및 위탁개발(CDO) 전 분야에서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창립 이래 현재까지 누적 수주는 CMO 112건, CDO 169건으로 누적 수주 총액은 214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한국 송도와 미국 록빌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 메릴랜드 록빌에

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최종완료해 미국 내 첫 생산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다. 록빌 시설은 6만 리터 규모의 원료의약품(DS) 생산이 가능하고 임상부터 상업 생산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갖췄다.

국내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11공구에 약 7조원을 투입하는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3캠퍼스는 기존 1, 2캠퍼스와 연계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다. 오는 2032년까지 6~8공장까지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은 132만 4000 리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질적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세포·유전자치료제(CGIT), 항체·약물 접합체(ADC), mRNA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중점을 둔다.

특히 지난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ADC 전용 시설은 오는 2027년 완제의약품(DP) 라인까지 추가될 예정으로, 항체 생산부터 접합, 완제까지 항암제 시장

전반에서 고객사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마스터세포은행(MCB) 생산, 백터 제작 서비스 등도 내재화한다. 백터 구축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제출까지 9개월 내 완료 가능한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 협력한다.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 국내 거점을 인천 송도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글로벌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 바이오의약품 생태계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국내 기업과 협력해 한국으로 진출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자산 11조9950억원, 자본 7조9228억원, 부채 4조722억원을 기록했다. 재무상태도 부채비율 51.4%, 차입금 비율 11.6%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애경산업, 日서 'K-메이크업' 경쟁력 전파

내달 13일까지 '루나' 팝업 행사  
대표제품 팁 컨실러 등 선별  
메이크업 직접 체험 기회도 제공

애경산업은 오는 5월 13일까지 일본 도쿄 신오쿠보에서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오쿠보는 일본 내 한류 중심지이자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애경산업은 루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K메이크업'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루나는 '매일 새로운 나(에브리 데이, 뉴 미)'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변화하는 모든 모습을 당당히 표현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갖췄다. 이번 행사에서는 루나 대표 제품인 롱 래스팅 팁 컨실러를 비롯해 롱 래스팅 코렉터, 컨실 블렌더 팔레트, 롱 래스팅 컨실 쿠션, 버블링 겜 글로스 등을 선보인다.



루나 '매일 새로운 나(에브리 데이 뉴 미)' 팝업 현장 전경

/애경산업

롱 래스팅 팁 컨실러의 경우, 2021년 일본 유명 온라인 채널인 쿠팡, 아마존 재팬 등에 입점했다. 2022년부터는 뷰티 편집숍,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2025년 12월 기준 1만316개 매장으로 브랜드 입지를 넓혔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은 루나만의 메이

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뷰티 구매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층과 활발히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루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펼쳐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시지바이오 '이지메이드 TI', 美 사업 공략

美 FDA 510(k) 허가 획득

대웅그룹 특수관계사인 바이오 재생 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지난 9일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환자 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 '이지메이드 TI'가 510(k)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 시장용 환자 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에 대해 FDA 510(k) 허가를 획득한 사례다.

FDA 510(k)는 미국 내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절차다.

이지메이드 TI는 환자의 CT 데이터를 활용해 설계하는 맞춤형 티타늄 임플란트다. 두개골 및 비하중성 두개안면 결손부 재건에 쓰인다. 의료용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며 금속 3D 프린팅 기술

인 '레이저 파우더 베드 융합' 공정으로 제작한다.

미국 현지 의료진이 환자 CT 이미지를 전달하면, 시지바이오는 한국 디자인 센터에서 맞춤 설계를 진행해 5일 이내 미국 병원으로 제품을 배송한다. 이후 병원 내 멸균 절차를 거쳐 즉시 수술에 적용할 수 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미국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상, 종양 절제 수술, 감염성 두개절제술 등 후에 이뤄지는 재건 수술 시장을 공략한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시지바이오 기술력과 글로벌 인허가 대응 역량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라며 "후속 제품군의 글로벌 인허가 및 사업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IMC-002' 독성 낮추고 부작용 줄여"

이문은시아, AACR서 연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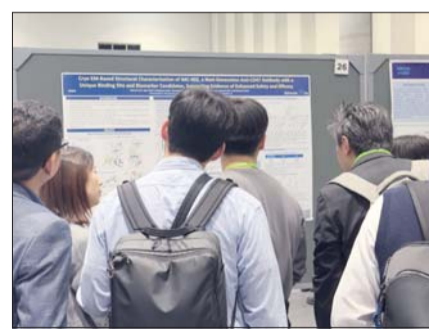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자회사 이문은시아는 지난 17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6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주력 파이프라인 'IMC-002'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밝혔다.

IMC-002는 암세포 표면의 면역 관련 단백질 CD47을 표적하는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존 CD47 항체 상용화의 한계였던 혈액학적 독성을 해결할 수 있는 IMC-002의 차별화된 기전이다.

조저은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IMC-002는 암 세포와 정상 세포 표면의 당화

패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암 세포뿐 아니라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공격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상 적혈구 표면에는 O-글리칸이 풍부해 물리적 차단막으로 작용하는 반면, 당 구조가 다른 암 세포에서는 IMC-002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 IMC-002는 경쟁 약물과 달리 좁은 각도로 결합하는 구조를 갖춰 세포 간 응집 가능성이 낮아 안전성 측면에서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실제로 임상 1a상에서 안전성을 입증했고 간세포암(HCC) 환자 대상 임상 1b상을 완료했다. 현재 삼중음성유방암과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용요법 임상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이문은시아가 '2026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문은시아

이와 함께 이문은시아는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분석을 통해 IMC-002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했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문은시아 관계자는 "IMC-002는 기존 CD47 항체의 안전성 한계를 극복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오늘부터 장내 매수

셀트리온은 22일 이사회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으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점을 일부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총 49만2611주,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3일부터 장내 매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3일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마무리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단행된 것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진정성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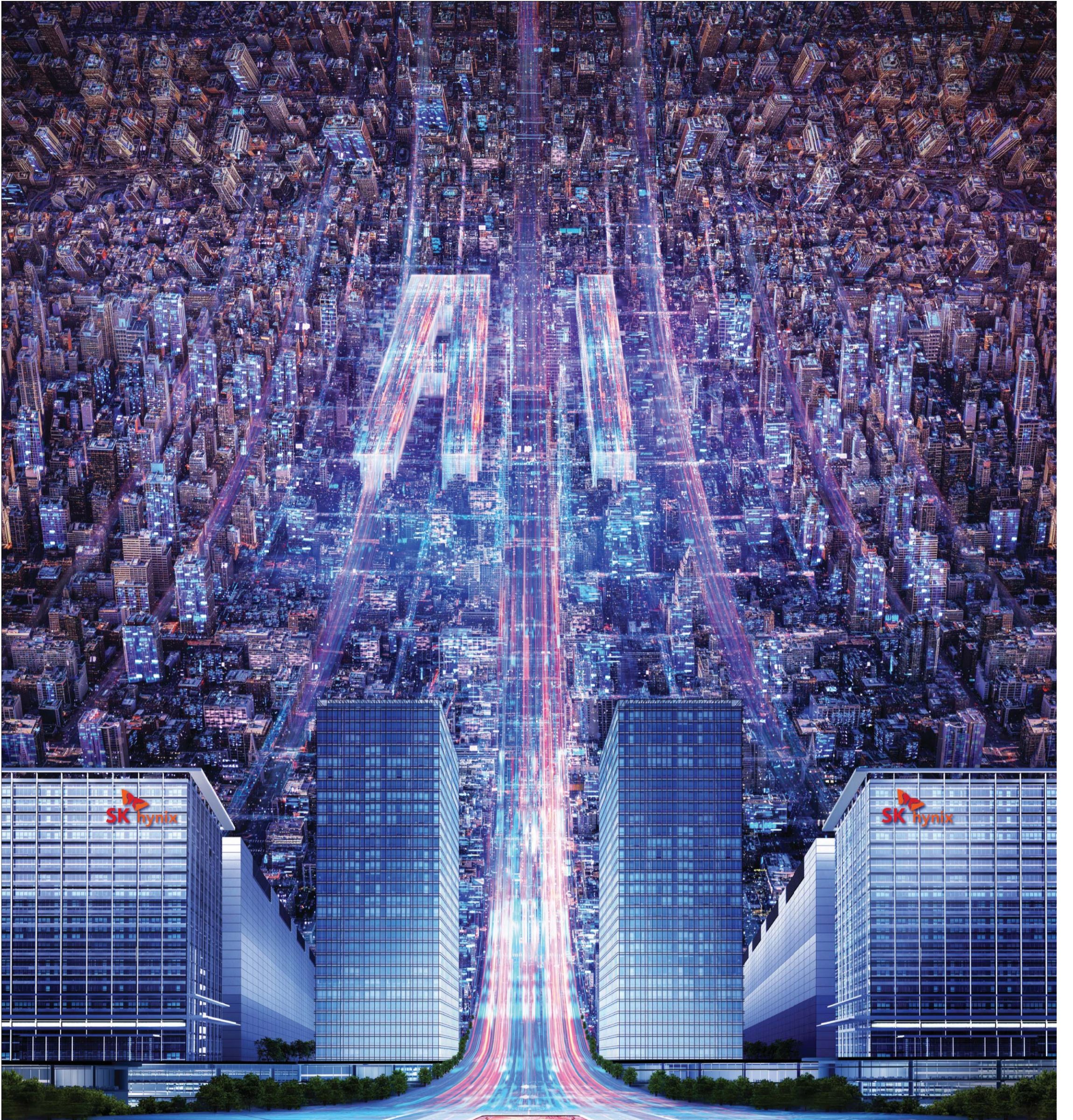
셀트리온은 앞서 이달 자사주 911만 주(총 발행 주식수의 약 4%)를 소각하며 주당 가치 상승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은 앞서 3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의 일환인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 주주환원 조치'를 즉각 이행한 사례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자사주 소각,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약 103%의 주주환원을 달성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에서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인 40%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이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배경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조1625억원, 영업이익 1조168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역시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의 경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확대와 신약 개발 본격화, 의약품 위탁생산 사업 성장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한미약품, 롤론티스 IR52 장영실상 수상

한미약품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가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주관하는 산업기술상이다. 롤론티스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에게 발생하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쓰인다. /한미약품



목암연구소, 아주대의료원과 AI 신약개발 맞손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 과트로 정밀의약 연구원과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기관은 각자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



한남, 성남시장 장애인복지 표창 수상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는 지난 21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성남시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남은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 장애인 생산품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롯데GRS

절전·플라스틱 감축 캠페인

롯데GRS가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인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및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의 확대 추세에 따라 사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임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해 동참한다. 롯데GRS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천을 위해 승용차 5부제 운영,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의 개인 실천 행동 방안과 참여 독려를 위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매장 및 사내 안내 방송 송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인한 석유 나프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모든 매장에서 대화용 컵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해 고객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재경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부음

▲조필제(前 동서식품 부회장)씨 별세=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23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함안 산인 선영. 02-3410-3151

한성숙, 캠퍼스 찾아 '모두의 창업' 청년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호서대서 대학생들과 창업 간담회 창업동아리 학생 현장 의견 공유 "대학, 혁신과 도전 시작되는 곳"

'모두의 창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위해 캠퍼스를 찾았다.

중기부는 한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2일 오후 충남 아산 호서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충남대, 경성국립대에 이은 세 번째 대학 현장 행보다. 간담회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창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동아리 학생들이 패널로 참여해 청년층이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모두의 창업에 대한 개선 의견과 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 장관은 "대학은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청년들의 반짝

이는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눈부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개시 25일 만인 지난 19일 현재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만번째 신청자는 대학 시절 창업동아리 활동을 했다가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기 위해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15일 16시까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류형우 아워홈 상무

WEF '영 글로벌 리더' 선정

류형우 한화그룹 아워홈 상무(사진)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2026년 영 글로벌 리더(YGL)'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M&A 전문가로서 아워홈의 체질 개선과 사업 다변화를 주도해 온 류 상무의 리더십이 국제 무대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경제포럼은 류형우 아워홈 상무와 이순원 PIP랩스 대표를 포함한 '2026년 영 글로벌 리더(YGL)' 명단을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혁신적인 차세대 리더를 선정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가 꼽혔다.

류 상무는 월가 투자은행과 국내



등 기존 사업 구조 재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M&A, 신사업, 마케팅 등 각 부문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총괄 조직을 전략적으로 신설했다.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 양수, 중저가 뷔페 사업 진출 등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워홈은 이번 YGL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K푸드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산업은 물론 콘텐츠,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입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왼쪽 3번째부터)휴앤쇼핑 권진미 대표, 충남경제진흥원 한관희 원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휴앤쇼핑

휴앤쇼핑, 충남 중소기업 판로 지원

지역 제품 발굴등 협력 체계 구축

휴앤쇼핑이 충남경제진흥원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나선다. 휴앤쇼핑은 22일 서울 강서구 휴앤쇼핑 본사에서 충남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휴앤쇼핑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및 판매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휴앤쇼핑은 TV 휴앤쇼핑 방송과 모바일 앱을 통해 충남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며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케일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기업의 성장과 전국 단위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퓨처엠 직원과 가족들이 22일 포항시 남구 냉천에서 진행된 '퓨처엠 Nature Guard Day'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임직원과 생태복원 앞장

포항 냉천서 씨드볼 투척 봉사

포스코퓨처엠은 22일 포항시 남구 냉천에서 '퓨처엠 네이처 가드 데이(Nature Guard Day)'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퓨처엠 네이처 가드 데이는 지역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복원과 환경 정화를 위한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직원과 가족 40여명이 참여해 황토와 씨앗을 섞어 만든 씨드볼을 2022년 태풍 피해 이후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냉천 일대에 투척했다.

씨앗이 안정적으로 발아해 생육할 경우 냉천에는 국가보호종인 벌개미취를 비롯해 칙솔나무, 감국, 배초향, 털부처꽃 등 하천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식물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활동에는 직원 자녀들도 함께

참여했다. 생태계 복원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씨드볼은 파종 초기 씨앗 유실을 줄이고 발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천연 비료 효과를 통해 토양 회복을 돕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투척할 수 있어 생태계 복원과 도시 녹화 등에 활용된다.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지현 포스코퓨처엠 기초소재기획그룹 차장은 "아이와 함께 손으로 씨드볼을 빚고 던지는 활동이 즐거웠고 도심 하천 생태계 회복에 동참해 보람있었다"며 "오늘 심은 다양한 식물들이 잘 자라서 아이가 더 건강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섬유산업 공급망 위기 해법 모색

중기중앙회, 섬유산업총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를 열고 섬유업계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에 나섰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섬유산업위원회는 패션칼라, 직물, 니트 등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한국국가방공업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

합연합회장, 백승호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자리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운철 수석 연구원은 "국내 섬유산업이 업체 수·생산·수출 전반에서 장기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사태에 따른 물류 차질, 탄소저감 등 환경규제 강화, EU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업계에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

# 공부 회복탄력성과 기말고사 역전 전략



**지 상 범**  
의사  
입시 토크

벚꽃이 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5월, 고등학교 교정은 대조적인 풍경으로 가득하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도 잠시뿐이며, 성적표라는 냉혹한 지표 앞에 좌절하는 학생과 불안해하는 학부모가 속출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자책이 아니라 인지과학에 기반한 ‘공부 회복탄력성’의 재건이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로서 기말고사 역전을 위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시험 스트레스와 전두엽의 마비

실패의 본질은 의지 부족이나 지능의 한계가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뇌 기능의 저하에 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과도한 시험 불안은 뇌의 감정 센터인 편도체를 과활성화해 고등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편도체 하이재킹’ 현상을 초래한다. 뇌가 학습 불능 상태에 빠진 아이에게 학원 보충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과열된 엔진에 엑셀을 밟으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다. 회복탄력성은 단순한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

술적 전제 조건이다. 부모는 아이의 전두엽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비난이 아닌 정서적 안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2028 대입 개편안이 주는 논리적 기회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직면한 2028 대입 개편안은 과거와 다른 희망의 근거를 제시한다.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1등급 비율이 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이 통계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뜻한다. 10퍼센트라는 넓은 문턱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로 충분히 만회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 ◆ 인지적 부채와 학습 주도권

시험 직후 철저한 분석 없이 다시 대형 학원의 진도를 따라가는 행위는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중간고사의 오답은 학습 체계의 결손 데이터이다. 이를 복구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인지적 부채’를 다음 시험으로 이월하는 것과 같다.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학원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의 비율이 7대 3이었다면, 기말고사 대비에는 이를 3대 7로 역전시켜야 한다.

### ◆ 결손 데이터 복구 위한 과목별 분석 전략

기말고사의 성패는 중간고사의 실패를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어는 외부 지문 연계 선지 판단에

실패했다면 선지의 근거를 본문에서 역추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학에서 응용력 부족으로 확신했으나 틀린 문항이 있다면 이는 오개념이 고착된 지점이므로 최우선 교정 대상이다. 영어는 단순 암기를 넘어 문장 구조 분석과 유의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대비에 집중해야 하며, 사회와 과학은 도표 해석과 실험 원리의 인과관계를 구조화하는 백지 복습이 필수적이다.

### ◆ 학교생활 충실도와 과정 중심 평가의 입시적 가치

내신의 유일한 설계자는 교실의 교사이다. 수업 중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행위는 출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가장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다. 또한 수행평가에서 자신의 태도를 분석하고 학습법을 수정한 기록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훌륭한 ‘극복의 서사’가 된다. 점수는 기말에 복구하면 되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간고사는 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가장 정교한 진단 데이터라고 다짐하자. 실패의 경험을 공부 회복탄력성이라는 근육으로 승화시킨 학생만이 입시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을 수 있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 금융업계의 ‘수수료’ 갈등



**기지 수집**  
안 재 선  
(금융부)

수수료는 누군가의 수익이자, 누군가의 비용이다. 수익을 지키려는 측과 비용을 낮추려는 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수수료 갈등이 업권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카드사와 주유업계다. 주유업계는 최근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유가로 결제액이 커지면서 주유업계 카드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다.

카드사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유업의 경우 결제금액이 확대될 경우 카드사 비

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 주유 결제액이 많아지면서 포인트·할인 비용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논리다.

수수료 갈등은 저축은행과 핀테크 업계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의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측은 핀테크 업계의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가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시 핀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수수료 인하가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수료 인하로 핀테크 업계가 위축되면 서민들의 자금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비용을 낮추려는 측과 수익을 지키려는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가 수익성 악화 속 비용 절감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카드사의 수익은 2조360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300억원 가량 줄었다.

저축은행 업권도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순이익이 4168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익 대부분이 상위 1~2개사에 집중됐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겪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매일수룩 ‘상생’의 가치를 돌아보아야 한다. 각 업권이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갈등이 격화되면 사회 전체의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역할도 불가피하다. 교통 분담을 업계에만 맡긴 채 갈등을 방치해선 안된다. 상생이 가져오는 효용은 생각보다 크다.

/wojts4187@metros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3일 (음 3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언행을 조심하세요. 60년생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72년생 부귀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성적이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합격은 가능합니다.



49년생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61년생 시기가 길하지 않습니다. 73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50년생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2년생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하세요. 74년생 마음 먹은대로 크게 이를 것입니다. 86년생 귀인의 도움이 오는 중입니다.



51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합니다. 87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52년생 늘 배풀면서 살아주세요. 64년생 시험을 보았다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6년생 현재의 막힌 상태를 한탄하지 마세요. 88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53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이곳저곳에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77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89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54년생 선천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66년생 늦게라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78년생 괴로운 심경입니다. 90년생 귀인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55년생 손조roi 문제를 헤쳐 나갑니다. 67년생 과감하게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79년생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91년생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56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92년생 능력을 점검하고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57년생 정성껏 구하면 재물을 조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69년생 구술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81년생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93년생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할 병이 있습니다.



58년생 빌어도 소원은 쉽게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70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82년생 교통사고를 각별히 조심하세요. 94년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9년생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71년생 늘 단전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83년생 마음을 편하게 갖고 즐겁게 사세요. 95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 김상회의四季

삼재풀이



삼재나 삼살(三殺)들의 영향을 일부 역학자들은 무시하기도 하는데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생사 황색이 우연으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 운이 관찰을 때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가도 흉운이 오고 삼재가 겹치면 형, 충(刑,沖; 형벌을 받고 부딪히는 오행)같은 흉한 기운이 자신이나 부모, 배우자 또는 자식 등 육친의 자리 어느 곳에서 작용 되는가에 따라 해당하는 가족이 사고나 흉액을 맞는다. 관광 버스가 빙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사람은 멀쩡하고, 어느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삼재가 들어도 잘못되는 일도 없이 무난히 지내는 사람도 있어서 삼재라는 것이 안 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삼재 역시 개인차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사주팔자 구성이 원만한 경우라고 본다.

삼재 얘기가 나왔으니 삼재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사주명조라는 것은 우주의 기운을 본 따 소유주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氣), 즉 에너지 코드다. 나 개인의 에너지와 천지기운의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좋은 기운과 내 것이 맞지 않는 기운이 오고 가는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삼재나 삼살을 응용한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겨울이 오면 추위를 덜 탄다. 반대의 경우라면 겨울만 오면 갑절로 힘이 들고 몸도 컨디션이 저하되어 독감에 더 잘 걸린다. 그런 사람들은 겨울엔 따뜻한 동남야로 가서 추운 시기를 피하고 오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까지 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 전통적으로 삼재 방지 부적 또는 액운 방지 삼재풀이 의식을 하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분야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8	1	6	
		4	3	2	
9					4
1			8	9	
	9	2		8	4
		7	3		2
					4
8	1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7	2	9	1	2	8
9	8	2	1	6	8	7	9	
7	1	2	8	9	8	6	2	9
2	9	9	1	6	8	2	8	7
1	7	8	9	1	9	2	6	8
8	2	6	8	7	2	9	9	1
2	2	7	9	9	1	8	8	6
8	6	9	2	8	7	9	1	2
9	8	1	6	8	2	7	9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숲세권·역세권' 누리는 장위 13구역... 5900세대 들어선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북서울꿈의숲·동북선 입지 살려 남북도로 신설해 교통 순환 도모

서울시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재개발 대상지인 장위동 219-90 일대와 장위동 224-12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위동 219-90 일대인 13-1구역에는 3400세대, 장위동 224-12 일대인 13-2구역에는 2500세대 등 모두 5900세대 안팎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속통합기획에는 지난해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 기준 용적률은 30% 완화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보다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용적률은 2008년 4월 수립된 장위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상 230%, 4128세대 규모에서



장위 13-1·2구역 조감도.

(서울시)

300%, 5900세대 안팎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오동근린공원 등의 자연환경과 동북선 개통(예정) 등 대상지가 가진 입지적 특성을 살려 '숲세권과 역세권을 다 누리는 장위 생활권의 중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먼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을 잇는 광역녹지축을 연결하고,

장위 13-1·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지구의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 변에는 연결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연결녹지를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에서 공원·녹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지축을 따라 조성되는 보행

로와 13-1·2구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북서울꿈의숲에서 신설역세권, 장곡초등학교, 장위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걷기 편한 보행 중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월계로 개선사업(북서울꿈의숲~오동근린공원 연결녹지 및 보행교 설치)을 추진 중이다.

그간 장위 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도 다시 연결된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해 순환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교통량이 집중됐던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확폭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장위 13-1·2구역이 개별 사업 추진시에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두 개 구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 통경축(16m)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북서울꿈의숲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또 대상지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생활권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한다. 기존 생활가로인 장위로와 돌곶이로, 역세권 접근가로 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두 개 구역 경계부에 '커뮤니티 필드(주민공동시설 배치)'를 조성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성북구에서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중 '장위 13-1·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보행·녹지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구 전체의 공간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metroseoul.co.kr



metro

## 인하대, 캠퍼스 내 자율주행 로봇 도입

(주)로보티즈AI와 스마트캠퍼스 구축

인하대학교(총장 조병우)가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주)로보티즈AI와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인하대는 지난 21일 로보티즈AI와 스마트캠퍼스 구축·배달 서비스 로봇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퍼스 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교육·연구·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실증형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인하대는 로봇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로보티즈AI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음료 로봇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캠퍼스 안전을 지원한다. 인턴십과 취업 연계



(왼쪽부터) 김병수 로보티즈AI 대표이사과 조병우 인하대 총장이 스마트캠퍼스 구축·배달 서비스 로봇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하대와 로보티즈AI는 앞으로 로봇 운영 환경 개선과 함께 자율주행 로봇 기반 물류 연구와 공동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 미디어 교육 받은 청소년, 가짜뉴스에 더 취약

### 청소년 72% '숏폼'으로 뉴스 소비 알고리즘 추천으로 '수동적' 형태 교육 한계·과신효과로 역효과 발생

청소년의 뉴스 1순위 소비 채널이 숏폼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숏폼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역설이 확인된 것이다.

이장석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연구팀이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전국 만 14~19세 중·고등학생 51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숏폼 뉴스 신뢰도 형성 매커니즘'을 분석한 결과다.

22일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1%가 1순위 뉴스 소비 채널

로 숏폼 플랫폼을 꼽았다. 긴 영상·스트리밍 플랫폼은 20.1%, 포털은 7.7%에 그쳤고, TV나 신문 등 전통 매체를 1순위로 선택한 경우는 없었다. 뉴스 소비 방식 역시 71.8%가 소셜미디어 이용 중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우연히 접하는 '수동적 소비' 형태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의 뉴스 신뢰는 '사실 여부'보다 '플랫폼과 또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9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또래 동조성'(표준화 계수  $\beta = .253$ )이었다. '좋아요'나 댓글이 많은 콘텐츠일수록 비판적 검증 없이 신뢰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가짜뉴스 신뢰도 간 관계는 기존 통념과 정반대였다. 실제 숏폼 가짜뉴스 영상을 제시한 뒤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의 평균 점수는 3.61점으로, 적게 받은 집단(2.9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과신 효과'를 지목했다. 연평균 교육 시간이 6.64시간에 그치고 내용도 이론 중심에 치우쳐 실제 출처 확인이나 교차 검증과 같은 실습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경계심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장석 교수는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가짜뉴스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방어막을 스스로 해제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단편적인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판별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7 | 해질 / 19:14

**4월 23일 (木)**  
음력 : 3월 7일

**수도권 날씨**  
10 ~ 2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7/22, 동두천 8/22, 가평 6/20, 파주 7/23, 서울 10/22, 양평 7/22, 인천 9/23, 수원 9/22, 용인 9/22, 평택 7/22, 백령도 8/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경기도, 혁신 기후테크 44곳 집중 지원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자금 제공

경기도가 1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 44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금 및 판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업들의 '데스밸리'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34곳과 3년 이상 관련 산업을 영위한 도내 우수 중소·중견기업인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이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공모에는 총 420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기술 혁신성, 탄소 저감 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 기업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항공유(SAF) 원료 생산 기업

'그린다'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34개 스타트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이 기업당 평균 4000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사업 모델 고도화, 전문 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설명회,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도 제공해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지정서가 수여되며, 기업당 연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지원받는다. /경기=김대희 기자 dykimi@

### 메트로 한줄뉴스



▲미국 트럼프, 이란 휴전 연장 '무기한' 아닌 '3~5일' 의향 /사진 뉴스  
▲'얼굴 없는 최고지도자' 모스타바...이란, '침묵의 정치'로 재편되나

▲영·프 주도로 22~23일 '호르무즈 재개방' 군사 회의  
▲중국 시진핑, 아프리카 모잠비크 정상 만나... "에너지·광물 협력 탐색"

▲북 사회안전성, 러시아 내무부 회담... "경찰 도입 심도 있게 논의"  
▲대만인 57% "중국과 대만 분쟁시 美 병력 파견 않을 것"



유통업계  
가정의 달 맞이  
할인·콘텐츠 선배  
니



Life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CDMO  
초격차 굳히기  
L2



# 유행 대신 찾은 본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재미 깨우다

2017년 론칭 후 10년간 신발 10종 출시  
편한 신발만 출시하는 브랜드 철학 지켜  
발에 닿는 모든 부분 메리노 울 소재 사용

오래 걸어도 발 붓지 않아 입소문 폭발  
메이트 모델 171만 족 판매... 매출 견인  
가벼운 무게에 유행 안타는 디자인 인기  
세계인 발 편안하게... 글로벌 도약 준비



르무통 스테디셀러 '메이트'의 신규 컬러 스카이블루. /르무통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르무통

#### ◆트렌드보다 '본질'에 집중

빠르게 변하는 패션 시장에서 르무통(Le Mouton)의 행보는 독보적이다. 매 시즌 수십 개의 신제품이 쏟아지는 신발 업계의 관행을 뒤로하고, 르무통은 2017년 브랜드 론칭 이후 10년 동안 단 10종의 신발만을 출시했다. 제품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평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편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는다"라는 철저한 브랜드 철학 때문이다.

르무통은 프랑스어로 '양' 또는 '양가족/양털'의 의미이다. 르무통은 '벗고 싶지 않은 편안함'을 구현하기 위해 소재의 원천 기술부터 파고들었다. 단순히 기성 원단을 구매해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사 선택부터 직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특히 발에 닿는 모든 부분에 자연 소재인 '메리노 울(Merino Wool)'을 활용, 30년 직조 기술력이 집약된 독자적 특허 원단 'H1-TEX(에이치원텍스)'를 개발하며 컴포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 ◆60만 건 리뷰가 증명한 '여행 신발'

르무통의 성장은 마케팅의 힘보다 소비자들의 '진심 어린 입소문'에서 시작했다. 실제 제품을 경험한 고객들이 "오래 걸어도 발이 붓지 않는다", "양말 없이 신어도 쾌적하다"는 후기를 자발적으로 퍼뜨리며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것이다.

현재까지 쌓인 누적 리뷰만 60만 건 이상이며,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수상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컴포트슈즈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5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국민 브랜드로 우뚝 섰다. 최근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글로벌 플랫폼 라쿠텐(Rakut

en) 워킹화 카테고리에서 실시간 랭킹 1위를 기록, K-패션의 저력을 해외 시장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 ◆171만 명이 선택한 '메이트(Mate)'

르무통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한 대표 모델은 단연 '메이트(Mate)'다. 2021년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단일 제품으로만 누적 판매량 171만 족을 돌파하며 '메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메이트의 핵심은 머리카락 5분의 1 두께인 초미세 메리노 울을 사용해 '물에 뜰 만큼' 가벼운 무게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울 소재 특유의 뛰어난 통기성과 수분 조절 능력 덕분에 사계절 내내 쾌적한 발 상태를 유지해 주며, 유행을 타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9가지 컬러 라인업을 갖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르무통은 단순히 신발을 파는 기업이 머물지 않는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걷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내 걷기 동호회 '월월(Walk Walk)'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걷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브랜드의 진심을 보여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르무통 산책회'는 부산 해맞이 산책, 문경새재 사계 산책, 도쿄 산책회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고객과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 ◆점점 확대해 글로벌로

르무통은 올해 오프라인 점점 확대와 글로벌 생산 라인 강화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발을 편안하게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일환의 하나인 문경새재에 위치한 첫 플래그십 스토어 '르무통 마루'는 걷는 이들에게 완전한 휴식을 선사한다. 1층 족욕장부터 4층 새재 마루까지, 고객들이 걷기 전후에 머물며 편안함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아울러 'WALK EASY EVERYDAY(워크 이지 에브리데이)' 캠페인을 통해 매일의 편안한 걸음이 일상의 질을 높인다는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스테디셀러 '메이트' 아이보리 컬러



엄마의 해외여행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Le Mouton

르무통 광고 영상 캡처



▲'6번 우익수' 이정후·'7번 유격수' 김혜성, 시즌 첫 맞대결...나란히 선발 /사진 뉴스시  
▲오타니, 추신수 넘어 53경기 연속 출루...아시야 타자 최장 신기록

▲영국 코번트리, 59년 만에 챔피언십 우승...양민혁은 13연속 명단 제외  
▲프로농구 LG, 조상현 감독과 3년 재계약...오는 2029년까지 동행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통합 우승 도전...삼성생명 꺾을까  
▲남자배구 한국전력, FA 센터 이민규 영입..."전술 완성도 높여줄 자원"

#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공식 = AI + BIO

LG의 AI·BIO 융합기술은 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 미래, 같이

시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